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1Q

2023
vol.30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분석

해외 VC 시장 동향

모태 출자펀드 투자산업 트렌드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5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17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35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분석

45

해외 VC 시장 동향

82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발 행 처 한국벤처투자
발 행 인 유용환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 자 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



MarketWatch

1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3년 1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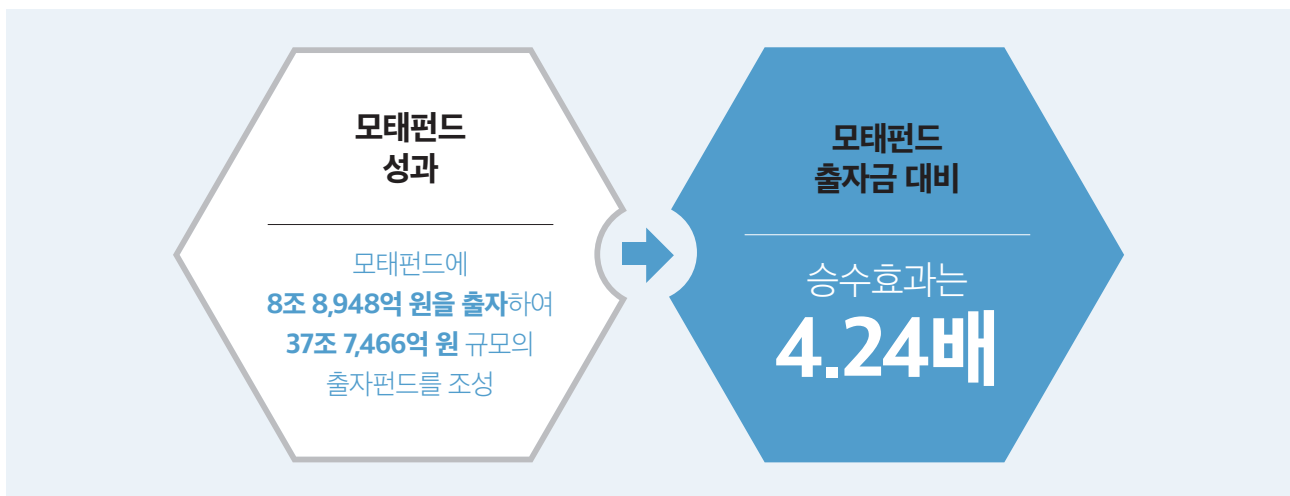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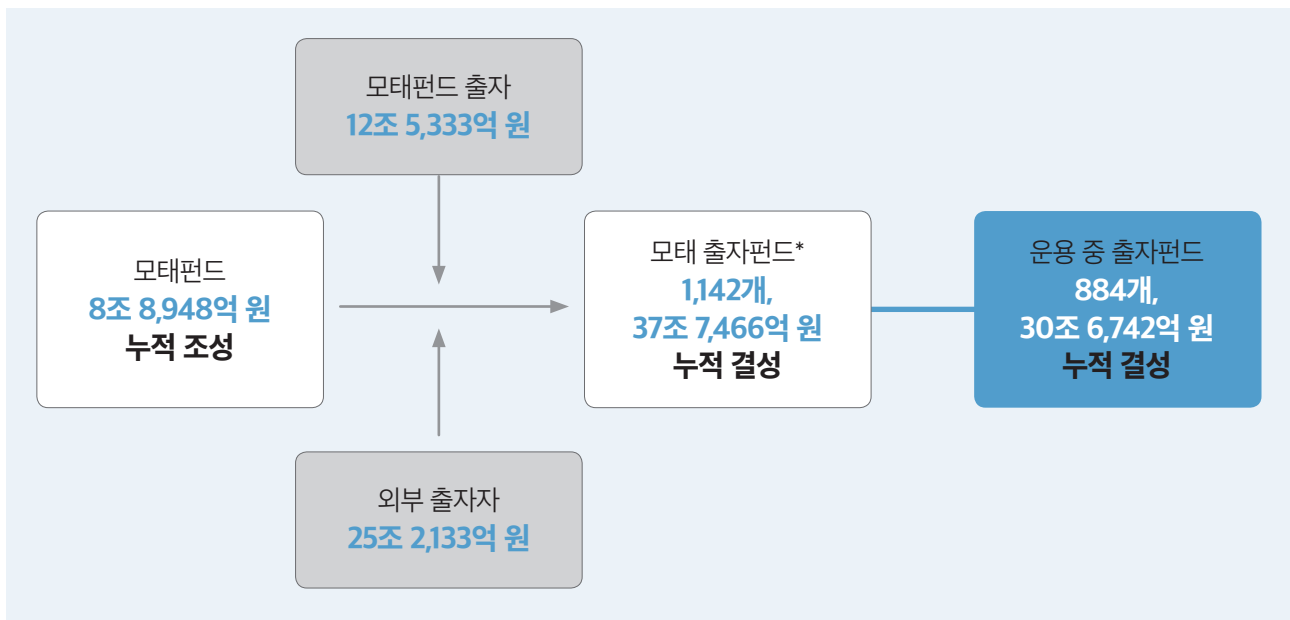
01

모태펀드 개요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포함
** 전체 투자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8조 8,948억 원이다. 외부출자금은 소폭 증가한 25조 2,133억 원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1,142개*, 37조 7,466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884개, 30조 6,742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9,312개사에**에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 모태펀드 운용 현황



02

모태 출자펀드 결성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3년 1~3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7개, 2,951억 원 규모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퀀텀 10호 딥테크펀드(GP:퀀텀벤처스코리아)'로 540억 원 규모이다.

표 1 — 2023년 1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그린뉴딜 SGC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에스지씨파트너스	250	100	1.04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하이DGB 디지털그린 벤처펀드 2호	벤처투자조합	하이투자파트너스	300	100	1.05
중진	자조합출자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301	149	1.18
중진	세컨더리	와이어드 클로버 사모투자합자회사	PEF	와이어드 파트너스	215	150	3.06
중진	자조합출자	전북·강원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198	98	3.08
엔젤	지방기업	부울경 메가 스타트업 징검다리펀드 제1호	벤처투자조합	엔브이씨파트너스	55	39	1.04
엔젤	대학창업	카이스트 기술창업 부스트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100	30	1.09
엔젤	지방기업	와이앤아처 로컬펀프업 투자조합 1호	벤처투자조합	와이앤아처	50	39	1.11
엔젤	지방기업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경남벤처투자	62	39	1.18
엔젤	지방기업	호남제주권 EK 징검다리 펀드	벤처투자조합	한국엔젤투자협회	50	39	2.02
엔젤	대학창업	포스텍 홀딩스 7호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50	24	3.15
엔젤	지방기업	충청 지역 엔젤 징검다리 조합	벤처투자조합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55	39	3.29
혁신모험	창업초기	단디 하모 스타트업 투자조합 1호	개인투자조합	시리즈벤처스	100	40	1.04
혁신모험	창업초기 일반	엘앤에스 EarlyStageIV ICT 소부장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엘앤에스벤처캐피탈	450	200	1.11
혁신모험	창업초기	씨엔티테크 제22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씨엔티테크	120	72	2.14
특허	특허기술사업화	퀀텀 10호 딥테크펀드	벤처투자조합	퀀텀벤처스코리아	540	47	1.18
특허	IP기반 창업기업	서울대 STH IP창업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서울대학교기술지주	56	30	1.30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3년 3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6조 1,718억 원(42.8%)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6조 3,974억 원(16.9%), 연금/공제회 4조 5,633억 원(12.1%) 순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을 살펴보면 정책기관(1,777억 원) 다음으로, 금융기관(397억 원), VC(27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3위를 차지했던 연금/공제회의 경우 이번 분기 출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2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금/공제회	VC	일반법인	개인	기타 단체, 외국인	합계
2023.03	1,777	397	0	278	273	90	137	2,951
누적	161,718	63,974	45,633	39,973	45,816	5,008	15,345	377,466

* 결성연도 기준

※ — 조합원 분류기준(KVCA 기준 참고)

구분	상세분류	분류기준	
정책 금융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	
	기타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정부기금 등 공적 기금), 산업은행, 기타 모펀드	
	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	
민간 출자	금융기관(산은 제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 여전사, 신기술조합, 금융투자업, 벤처투자조합, VC 등		
	연금/공제회	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
		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교정공제회 등
	벤처캐피탈(VC)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 신기술사, LLC, 창업기획자 등)	
	일반법인	영리 목적의 법인	
개인	개인 및 특정금전신탁		
	기타 단체, 외국인	KIF, 재단, 사단,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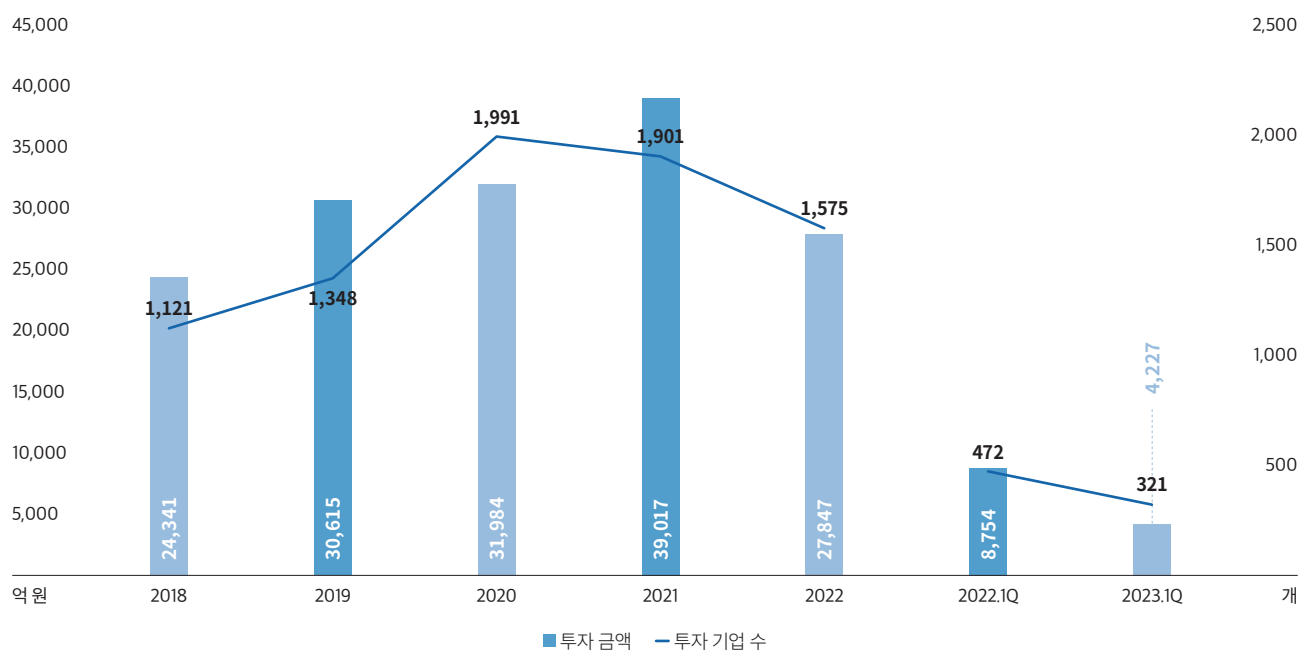
03

모태 출자펀드 투자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3년 1분기에서는 230개 모태 출자펀드가 321개 기업에 총 4,227억 원이 투자되었다. 2023년에도 벤처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분기 투자금액과 기업 수 기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7%, 32.0% 감소하였다.

그림 3 — 최근 5년 투자 추이



* 2023년 3월 말 기준 데이터

** 2018~2022년 투자금액은 해당 기말시점 고정금액

출처 한국벤처투자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 13.2억 원이 투자되었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77.2억 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219.3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은 [표 3]과 같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표 3 — 2023년 1분기 기준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영상/공연/음반	영상	7	120
2	보백씨엔에스	전기/기계/장비	전기장비	4	115
3	에이피알	화학/소재	화학물질/제품	3	90
4	아이디어허브	유통/서비스	전문서비스	2	88
5	프로그린테크	화학/소재	화학물질/제품	5	72
6	공부선배	ICT서비스	정보서비스	4	70
7	페리저에어로스페이스	전기/기계/장비	운송장비/부품	4	65
8	레신저스	전기/기계/장비	정밀기기	2	52
9	○○○○○	영상/공연/음반	영상	1	50
10	오토피디아	ICT서비스	정보서비스	2	50

업력별 신규 투자

* 총 투자기업 수 32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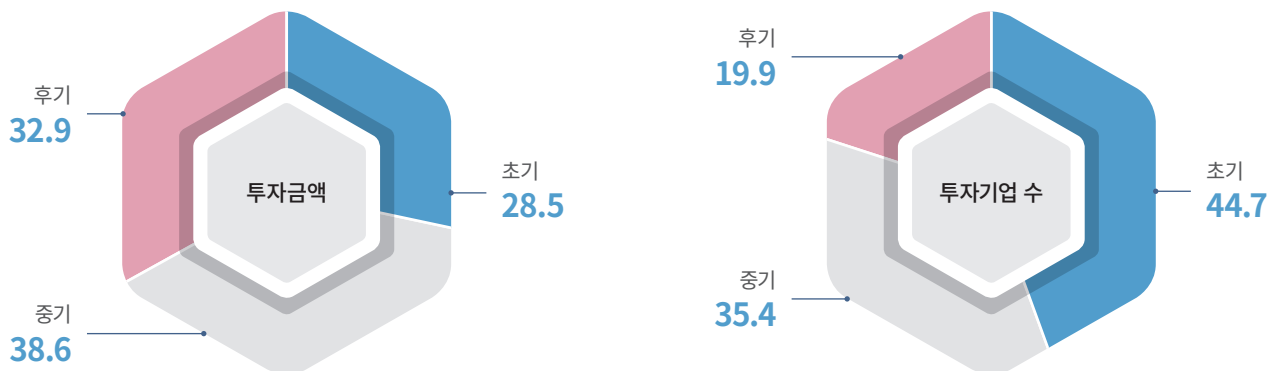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1,207억 원(28.5%),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1,630억 원(38.6%),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1,389억 원(32.9%)이 투자되었다.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기업 144개사(44.7%), 중기기업 114개사(35.4%), 후기기업 64개사(19.9%)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는 모든 업력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투자금액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22년 3월 8,399억 원에서 2023년 3월 4,2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 감소하였다. 업력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력은 중기로 전년 대비 투자금액이 60.5% 감소하였다. 그 뒤를 이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50.3%, 후기기업은 24.7% 감소하였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 역시 업력별로 전년 대비 감소폭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후기기업의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21.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다. 반면, 초기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한 8.4억 원, 중기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한 14.3억 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 시에도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모든 업력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4 —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단위: %)



출처 한국벤처투자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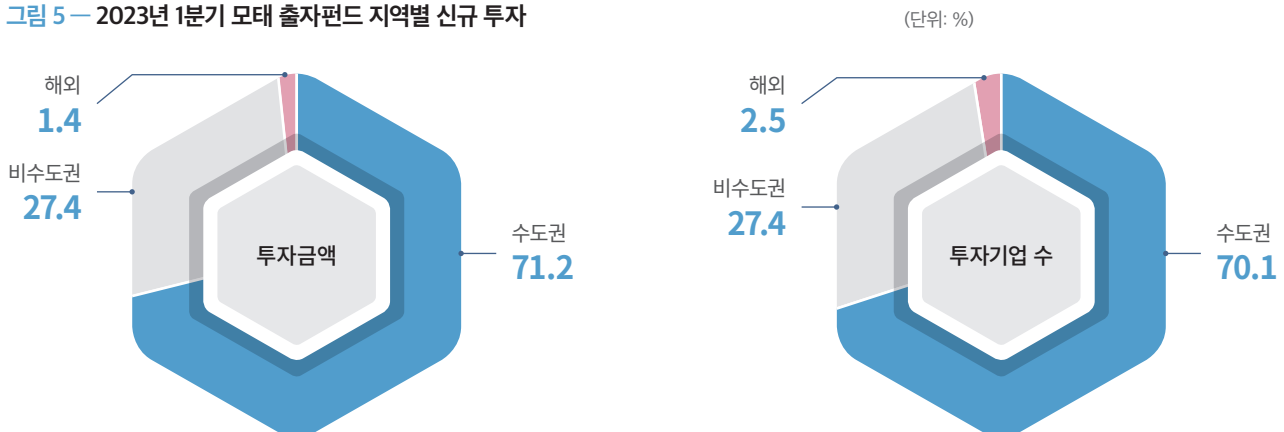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3,009억 원(7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기간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1,157억 원(27.4%),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61억 원(1.4%)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해외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92.4%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49.3%,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30.3% 감소하였다. 권역별 투자기업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의 기업 225개사(70.1%), 비수도권 소재 기업 88개사(27.4%), 해외 소재 기업 8개사(2.5%)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모든 권역에서 투자기업이 감소한 수치이다.

서울·경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에선 160개사(-31.9% YoY)에 2,237억 원(-50.4% YoY)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경기 지역에선 59개사(-13.2% YoY)에 726억 원(-47.6% YoY)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면 인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투자금액(46억 원, 31.4%, YoY) 및 투자기업 수(6개, 100.0%, YoY) 모두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5대 광역시의 경우 53개 기업에 70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전체 투자금액의 16.6%를 차지하였다. 부산 지역이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24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면 울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90.7% 감소한 14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기타 지방의 경우 35개 기업에 454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44개사, 863억 원)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에 290억 원이 투자되며 기타 지방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그 뒤를 충남(62억 원), 강원(35억 원)이 이었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경북지역이 32.2억 원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5 —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 총 투자기업 수 32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 구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출처 한국벤처투자

2023년 1분기 출자펀드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서비스로 총 850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투자 규모의 20.1%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영상/공연/음반 785억 원(18.6%), 바이오/의료 588억 원(13.9%)이 차례로 2위, 3위를 기록했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게임이 16.9억 원으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ICT제조가 16.1억 원을 기록했다.

그림 6 —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단위: %)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20.1%
2	영상/공연/음반	18.6%
3	바이오/의료	13.9%
4	유통/서비스	13.3%
5	전기/기계/장비	8.8%
6	기타	8.8%
7	ICT제조	6.8%
8	화학/소재	6.4%
9	게임	3.2%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24.2%
2	유통/서비스	17.4%
3	영상/공연/음반	16.8%
4	바이오/의료	11.5%
5	기타	8.6%
6	전기/기계/장비	8.3%
7	화학/소재	5.6%
8	ICT제조	5.3%
9	게임	2.4%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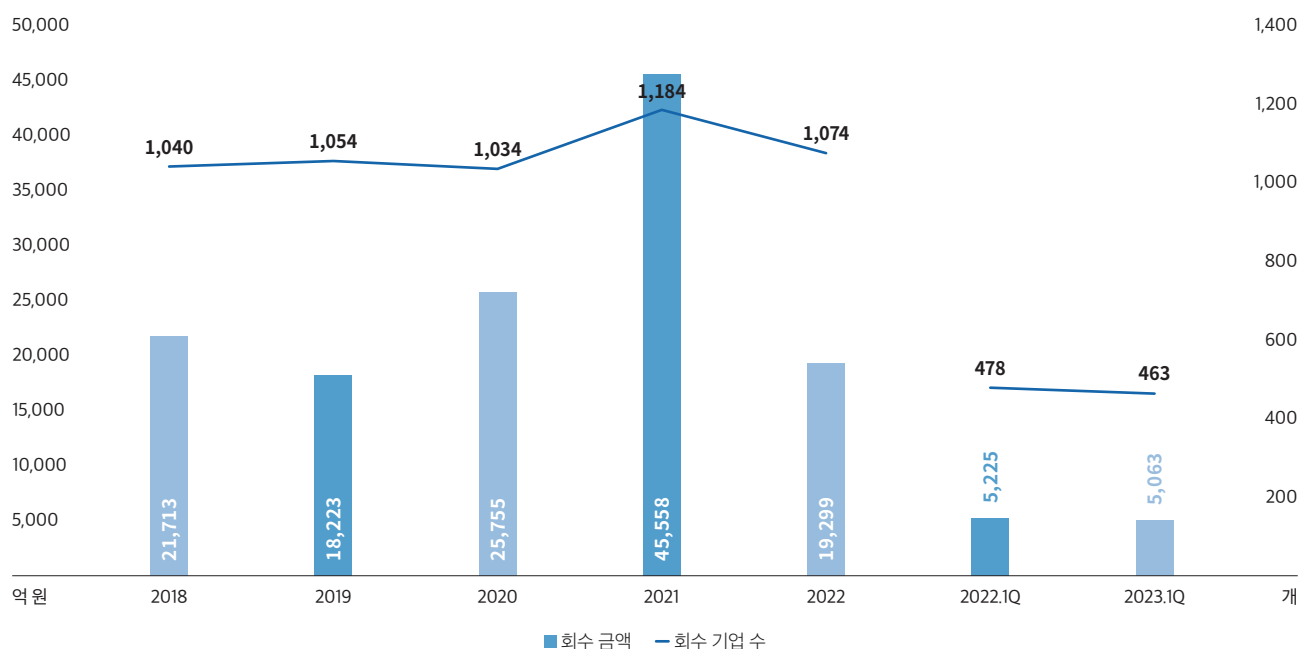
04

모태 출자펀드 회수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3년 1분기에는 300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463개 기업을 통해 총 5,063억 원(회수원금 2,301억 원, 회수수익 2,761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2.2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3.1% 감소했으며, 기업 수 기준으로 3.1% 감소하며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림 7 — 최근 5년 누적 회수 추이



* 2023년 3월 말 기준 데이터

출처 한국벤처투자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업종별 기준으로 2023년 1분기 ICT서비스(1,663억 원, 32.3%)와 바이오/의료(918억 원, 18.1%)가 회수금액 각각 1, 2위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CT서비스 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1,161억 원(22.9%)의 회수가 이루어지며 여전히 회수금액 기준으로 업종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분기 ICT서비스에 속한 하나의 기업에서 664.2억 원의 회수가 이루어진 영향이 크다. 해당 기업 사례를 제외하고도 ICT서비스 기업들의 다수가 회수 관련 상위권에 포진해있는데 회수총액 기준으로 5개, 수익배수 기준으로 3개의 기업이 상위 10위권 내에 포진해있다.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3년 1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5개사이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신규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수는 20개사이다.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표 4 —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상장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 (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스닥	2017.07	2023.03	100	4,036	면역항암제 및 알레르기 치료제
자람테크놀로지	코스닥	2000.02	2023.03	325	3,093	XGSPON, 기가와이어, 광트랜시버 등
제이오	코스닥	1994.11	2023.02	90	10,921	탄소나노튜브,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
스튜디오미르	코스닥	2010.10	2023.02	543	2,126	애니메이션 제작
티이엠씨	코스닥	2015.01	2023.01	504	4,308	반도체용 특수가스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 2023년 3월 말 기준

표 5 —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진행 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코스닥	2017-10-16	심사 중	산업용 및 자동차용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
와이바이오로지스	코스닥	2007-12-31	심사 중	항체의약품 기술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
파두	코스닥	2015-06-30	심사 중	반도체(SSD) 컨트롤러 연구개발
이노그리드	코스닥	2006-10-04	심사 중	클라우드 솔루션
버넥트	코스닥	2016-10-04	심사 승인	AR 소프트웨어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코스닥	2018-09-07	심사 중	세포분석 자동화기기
와이랩	코스닥	2010-11-19	심사 중	웹툰 원작 기반 2차 저작물
시큐레터	코스닥	2015-09-10	심사 중	디지털 보안 솔루션
시지트로닉스	코스닥	2008-02-01	심사 승인	반도체 다이오드
에이엘티	코스닥	2003-07-23	심사 승인	시스템반도체 성능검사
메디컬아이피	코스닥	2015-09-11	심사 중	3차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센서뷰	코스닥	2015-06-10	심사 승인	5G용 안테나 및 케이블 제조
오픈놀	코스닥	2012-04-18	심사 승인	직무역량 기반 HR솔루션
나라셀라	코스닥	1990-01-10	심사 승인	와인 수입 및 도/소매
이노시물레이션	코스닥	2000-05-24	심사 승인	자동차 및 산업기계 시뮬레이터
파로스아이바이오	코스닥	2016-04-19	심사 승인	신약개발(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트루엔	코스닥	2005-01-28	심사 승인	고성능 영상감시시스템 (IPCAM, NVR)
큐라티스	코스닥	2016-07-15	심사 승인	구제역 백신용 면역증강제 및 인체용 결핵 백신 개발
씨유박스	코스닥	2010-05-31	심사 승인	AI 생체인식장비 및 S/W
에스바이오메딕스	코스닥	2005-10-30	심사 승인	세포치료제/배아줄기세포, 3D세포 스페로이드 구현 기술



MarketWatch

2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해당 보고서는 반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2년 6월 말 기준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01

벤치마크란?

펀드 운용성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성과를 비교대상 자산의 성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벤치마크'란 **펀드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성과정보**로 전체 시장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펀드 그룹의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준지표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만약 특정 기간의 펀드 수익률이 10%일 때,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20% 상승했다면 펀드에 투자한 것이 상장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펀드 수익률이 -5%지만 상장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0%라면 펀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펀드의 성과가 좋고 나쁨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비교대상 자산의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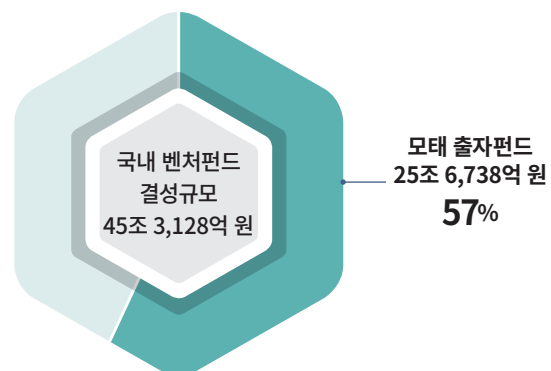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

한국벤처투자의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우리나라 벤처펀드의 약 57%(2022년 6월 말 기준)에 대한 누적 성과정보가 집계되어 있는 모태펀드 DB를 기반으로, 벤처펀드 성과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이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 기준

그림 1 —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펀드 결성 규모 대비 모태 출자펀드 규모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구성

- ①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 ② PME 벤치마크 (KOSPI / KOSDAQ 상장시장과의 수익률 비교지표)
- ③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 ④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벤치마크의 활용

벤처펀드 수익성의 기준 지표가 되는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다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개별 벤처펀드와 운용사의 성과를 비교/평가
- ② 투자 목표 수익률, 자산구성 등 자산배분계획에 참고
- ③ 정책자료 및 연구 목적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작성 프로세스

* 성과보수 제외, 세전 기준

벤치마크 성과데이터는 각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가 제출하는 반기 재무제표, 연간 감사보고서, 월간 보고 자료, 반기 펀드 투자자산 가치평가, 펀드 출자/배분 정보* 등을 기반으로 반기마다 산출한다.

각 운용사 제출 자료는 제출 시점에 수시로 집계하여 DB에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오류를 재검증한다.

반기 가치평가 자료 반영으로 인해 벤치마크는 기준시점에서 한 반기 시차(Time lag)를 두고 발표한다. 벤치마크 발표 이후 펀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추가/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벤치마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다음 반기에 반영한다. 또한, 벤치마크 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제공정보 범위와 형태 등 구성 항목 역시 변동될 수 있다.

■ 벤치마크 측정의 제한사항

펀드 투자자산 가치를 반기 주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성, 적시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펀드 결성 후 최초 2~3년 이내 시점은 벤처펀드의 특성(J-curve 효과*)상 의미 있는 수익률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 J-Curve 효과: 투자수익이 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초기에는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벤처투자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02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국내 벤처펀드 기간 수익률

표 1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2022년 6월 말 기준)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 (2005.6.~)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22.47%*	23.69%	21.71%	17.65%	15.34%	12.88%
(벤처지수)	26.18%	24.46%	22.19%	18.35%	16.34%	13.83%
(문화지수)	-4.21%	17.07%	17.70%	12.34%	8.75%	6.62%

* 2021.07.01.~2022.06.30.
기간(1년)의 벤처펀드 수익률이
22.47%임을 의미한다.

- ① 전체기간 수익률은 모태펀드의 결성직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② 문화지수는 모태펀드 문화, 영화, 과기정통계정에 속한 모태 출자펀드의 수익률이며, 나머지 계정은 벤처지수에 속함(문화, 영화계정의 경우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로, 기업 지분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 벤처투자자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함)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여 산출한 통합 수익률(Pooled IRR)이다. 또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펀드의 출자, 배분, 가치변동을 고려한 금액가중 연환산 수익률(end-to-end IRR)*을 반기별로 산출한다. (*[별첨 1] 참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펀드의 현금흐름은 해당일자가 속한 분기의 중간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e.g. 2017.3.1. 펀드 출자 → 2017.2.15. 펀드 출자 / 2016.7.5. 수익 배분 → 2016.8.15. 수익 배분으로 가정)

* 기간수익률은 장기간의 벤처펀드 수익률 변동 패턴을 보여준다. 대부분 벤처펀드의 존속기간은 7~10년이므로, 일반적인 벤처펀드의 수익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7년, 10년 기간의 수익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산펀드를 포함하여 모든 모태자펀드의 특정 시점 기준 평가된 가치를 활용하여 산출

PME(Public Market Equivalent) 벤치마크

표 2 — PME 벤치마크(2022년 6월 말 기준)

* 2021.07.01.~2022.06.30 기간(1년)
동안 벤처펀드에 출자/배분했던
동일금액을 동일시점에 KOSPI
지수에 투자/회수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29.43%임을
의미한다.

(KOSPI 지수는 3282.06
(2021.07.01.)에서 2332.64
(2022.06.30.)로 28.93% 하락)

** 2015.07.01.~2022.06.30. 기간(7년)
동안 벤처펀드가 코스닥시장
PME 대비 17.55%p의 초과수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 (2005.6~)
KOSPI PME (A)	-29.43%*	2.72%	-0.38%	1.33%	1.76%	2.39%
KOSDAQ PME (B)	-27.86%	2.26%	1.45%	0.10%	3.17%	2.16%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22.47%	23.69%	21.71%	17.65%	15.34%	12.88%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51.90%p	20.97%p	22.09%p	16.32%p	13.58%p	10.49%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50.33%p	21.43%p	20.26%p	17.55%p**	12.17%p	10.72%p

PME 벤치마크는 벤처펀드의 현금흐름과 가치변동, 상장 주가지수의 등락을 반영한 것으로,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한 금액만큼 상장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KOSPI, KOSDAQ 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과는 다르다).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1

표 3 — 결성연도별 투자수익률(2022년 6월 말 기준)

* 2004년에 결성했던 모든 펀드의 2022년 6월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이 5.71%임을 의미한다.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5.71%*	17.8%	4.95%	0.70%	22.87%	-12.02%
2005년	13	4,810	N/A	3.52%	-2.00%	-7.53%	16.17%	-25.27%
2006년	18	4,790	2.66%	4.71%	0.42%	-9.19%	37.30%	-16.80%
2007년	31	7,501	2.87%	4.99%	1.25%	-0.72%	34.26%	-28.57%
2008년	25	5,717	12.71%	9.64%	0.35%	-3.87%	61.94%	-17.60%
2009년	61	14,383	4.44%	6.82%	0.52%	-5.21%	42.71%	-23.26%
2010년	31	8,281	4.36%	12.56%	2.07%	-6.00%	23.94%	-29.43%
2011년	38	15,427	10.02%	10.76%	2.05%	-5.76%	60.98%	-14.95%
2012년	17	5,166	11.45%	16.73%	7.99%	1.93%	25.40%	-41.74%
2013년	41	13,142	17.93%	18.08%	11.89%	5.55%	41.96%	-11.68%
2014년	54	21,476	19.55%	21.42%	11.54%	6.99%	106.74%	-16.70%
2015년	61	19,474	19.32%	20.93%	13.87%	4.24%	47.55%	-12.41%
2016년	69	23,214	21.37%	22.04%	14.25%	3.16%	55.04%	-7.32%
2017년	98	34,402	20.16%	23.08%	16.80%	9.75%	52.68%	-9.86%
2018년	83	29,757	23.03%	23.35%	14.75%	7.04%	57.28%	-9.78%
2019년	93	26,919	16.43%	21.25%	11.49%	3.52%	83.74%	-13.42%
2020년	114	35,870	15.66%	24.06%	10.84%	0.93%	NM	NM
2021년	132	45,563	-0.31%	0.31%	-5.02%	-8.27%	NM	NM
2022년	19	9,803	-6.93%	-3.99%	-7.40%	-12.58%	NM	NM

① NM(not meaningful): 투자 2~3년 이내 시점 최대/최소값은 극단치로 유의미하지 않음

② 제1사분위/제3사분위 IRR: 결성연도별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사분위수로 나누었을 때, 각 상위/하위 25%에 위치한 펀드의 수익률이다.

③ 2005년의 Pooled IRR의 경우 IRR을 계산하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 N/A로 표기하였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사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당시 결성한 전체펀드(Peer Group)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에 위치해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시장 전체를 고려한 펀드/운용사의 상대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2

표 4 — 결성연도별 투자배수(2022년 6월 말 기준)

* 2004년에 결성하여 1원을 투자한 펀드들이 2022년 6월 말 현재 1.35원의 수익을 거둔 상태임을 의미한다.

결성연도	펀드 수	총약정액 (억 원)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1.35*	1.59	1.30	1.03	2.53	0.37
2005년	13	4,810	0.96	1.20	1.02	0.73	1.49	0.23
2006년	18	4,790	1.12	1.29	1.07	0.57	1.85	0.28
2007년	31	7,501	1.13	1.21	1.05	0.97	2.51	0.12
2008년	25	5,717	2.44	1.41	1.01	0.77	12.96	0.44
2009년	61	14,383	1.23	1.33	1.02	0.71	4.73	0.39
2010년	31	8,281	1.24	1.54	1.06	0.70	3.23	0.11
2011년	38	15,427	1.65	1.45	1.10	0.71	6.48	0.37
2012년	17	5,166	1.61	1.76	1.60	1.09	2.39	0.05
2013년	41	13,142	2.23	2.02	1.54	1.23	8.53	0.34
2014년	54	21,476	2.35	2.60	1.62	1.36	5.84	0.24
2015년	61	19,474	2.41	2.49	1.66	1.18	9.80	0.00
2016년	69	23,214	2.15	2.24	1.57	1.16	8.11	0.69
2017년	98	34,402	1.85	2.01	1.70	1.34	4.61	0.69
2018년	83	29,757	1.74	1.77	1.47	1.19	3.16	0.73
2019년	93	26,919	1.34	1.46	1.21	1.06	2.62	0.79
2020년	114	35,870	1.19	1.33	1.13	1.01	6.54	0.81
2021년	132	45,563	1.00	1.00	0.97	0.94	1.95	0.00
2022년	19	9,803	0.98	0.99	0.98	0.97	1.00	0.76

— 제1사분위/제3사분위 투자배수는 결성연도별 펀드들을 투자배수가 높은(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 상위/하위 25%의 위치에 해당하는 특정 펀드의 투자배수이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사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3

표 5 — 결성연도별 TVPI(2022년 6월 말 기준)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DPI	RVPI	TVPI
2004년	6	1,536	100.00%	1.35	0.00	1.35
2005년	13	4,810	94.66%	0.96	0.00	0.96
2006년	18	4,790	95.41%	1.12	0.00	1.12
2007년	31	7,501	92.37%	1.13	0.00	1.13
2008년	25	5,717	98.60%	1.54	0.90	2.44
2009년	61	14,383	93.77%	1.22	0.00	1.23
2010년	31	8,281	97.02%	1.22	0.02	1.24
2011년	38	15,427	93.95%	1.38	0.27	1.65
2012년	17	5,166	98.39%	1.53	0.07	1.61
2013년	41	13,142	97.25%	1.58	0.65	2.23
2014년	54	21,476	95.27%	1.41	0.94	2.35
2015년	61	19,474	96.20%	0.83	1.59	2.41
2016년	69	23,214	94.87%	0.72	1.43	2.15
2017년	98	34,402	97.77%	0.34	1.51	1.85
2018년	83	29,757	98.71%	0.18	1.56	1.74
2019년	93	26,919	90.39%	0.07	1.26	1.34
2020년	114	35,870	88.48%	0.03	1.16	1.19
2021년	132	45,563	53.91%	0.00	1.00	1.00
2022년	19	9,803	24.14%	0.00	0.98	0.98

— DPI (Distribution to Paid-In):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타냄

RVPI (Residual Value to Paid-In):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펀드에 남은 잔여자산 가치를 나타냄

TVPI (Total Value to Paid-In): 납입액 대비 총가치 (TVPI = DPI + RVPI)

결성연도별 벤처펀드의 총 DPI, RVPI, TVPI를 산출한다.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표 6 — 결성규모별 투자수익률(2022년 6월 말 기준)

펀드 결성 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전체 펀드 (2005.6~2022.06)	1,004	327,231	86.99%	12.88%	18.29%	7.96%	-2.92%
1,000억 이상	61	91,628	83.33%	18.54%	25.68%	15.39%	-2.10%
500억~1,000억 미만	121	76,574	86.64%	14.03%	19.79%	11.25%	2.13%
300억~500억 미만	175	61,533	88.54%	12.94%	19.53%	9.69%	0.22%
200억~300억 미만	209	47,194	89.87%	9.55%	16.76%	6.26%	-3.94%
100억~200억 미만	346	45,781	90.00%	7.34%	15.51%	5.78%	-4.01%
100억 미만	92	4,521	84.96%	8.96%	23.27%	7.62%	-3.44%

표 7 — 결성규모별 투자배수(2022년 6월 말 기준)

펀드 결성 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전체 펀드 (2005.6~2022.06)	1,004	327,231	86.99%	1.66	1.66	1.21	0.97
1,000억 이상	61	91,628	83.33%	1.92	2.16	1.44	0.99
500억~1,000억 미만	121	76,574	86.64%	1.69	1.73	1.36	1.04
300억~500억 미만	175	61,533	88.54%	1.62	1.71	1.26	1.00
200억~300억 미만	209	47,194	89.87%	1.47	1.56	1.18	0.95
100억~200억 미만	346	45,781	90.00%	1.39	1.60	1.17	0.94
100억 미만	92	4,521	84.96%	1.43	1.67	1.15	0.96

각 벤처펀드의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과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펀드규모별로 구분한 사분위수, 중위값을 산출한다.

03

벤치마크별 활용 예시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활용

* 활용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벤치마크 결과와는 다른 가상의 수치를 사용함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개별 펀드(운용사별/펀드별)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보상체계와 연계하거나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운용사 선정 및 펀드 위험관리 등 활용)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역사적 추이 분석을 통해 벤처 투자시장 거시동향,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책 및 연구목적 활용)
- 벤처펀드 출자/투자자가 벤처펀드 투자수익과 위험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Case 1.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벤처펀드에 투자하려고 할 때, 무위험자산 대비 KVIC 벤처펀드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과거 기간에 따른 KVIC 벤처펀드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비교하여, KVIC 벤처펀드 투자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시 —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VIC 벤처펀드 기간 수익률	4.13%	7.52%	9.19%	8.12%	7.78%	7.53%

Case 2. 벤처펀드를 위탁운용할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과거 펀드 운용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기간별 수익률을 참고하여, 각 운용사의 운용기간에 따른 평균적인 수익률 지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Case 3. 정책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국내외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을 활용하여 외국 벤처투자 시장이나 출자기관과의 수익률 비교가 가능하다.

예시 —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4.13%	7.52%	9.19%	7.78%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美 벤처펀드 벤치마크(기간수익률)	11.08%	8.03%	15.30%	9.04%

PME 벤치마크 활용

* PME의 계산은 [별첨 2]의 설명
참조

- 상장시장과 벤처펀드 수익률의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PME의 수익률 차이로 상장시장 대비 벤처펀드의 초과수익을 가늠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 상장 투자자산 대비 벤처펀드 투자수익률의 목표수준을 가능해보고 싶은 경우

- ➡ PME 벤치마크는 KVIC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금액만큼 상장 시장에 투자/회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시한다. PME 수익률* 정보를 통해 벤처펀드의 KOSPI / KOSDAQ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파악하고, 장단기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예시 —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 (2005.6~)
KOSPI PME (A)	9.60%	8.87%	4.54%	3.99%	6.19%	5.31%
KOSDAQ PME (B)	8.06%	7.24%	12.11%	6.76%	7.42%	6.75%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4.13%	7.52%	9.19%	8.12%	7.78%	7.53%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5.47%p	-1.35%p	4.65%p	4.13%p	1.59%p	2.22%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3.93%p	0.28%p	-2.92%p	1.36%p	0.36%p	0.78%p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활용

- 특정시점에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 대비 분배가 진행된 정도, 결성연도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투자배수는 잔여자산이 현재 가치평가금액 수준으로 회수되어 분배 가능할 때, 투자금의 몇 배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향후 벤처펀드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수익을 파악 가능하다.
- 투자배수는 신속하고 쉽게 운용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투자를 비교해볼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성과평가 과정에서 각각 결성연도가 다른 2개 펀드(ex. 2010년/2013년)의 수익률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할 때, 각 펀드가 해당 결성연도에 생긴 평균적인 벤처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 결성연도별 벤치마크는 결성연도별 KVIC 벤처펀드의 수익성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제1사분위, 중위값, 제3사분위, 최대값, 최소값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결성연도를 고려한 상대적 성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 파악 가능하므로, 향후 잠재적인 회수가 가능 금액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의 경우 동일한 5%의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라 하더라도, 2010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2.20%, 2013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11.22%이기 때문에, 2010년에 5%를 달성한 펀드가 당시 시장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

결성연도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최대값	최소값
2010년	3.84%	9.57%	2.20%	-3.39%	22.58%	-32.87%
2013년	19.88%	23.23%	11.22%	1.34%	54.70%	-11.68%

결성연도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10년	1.18	1.31	1.06	0.80	2.53	0.04
2013년	1.64	1.69	1.38	1.04	3.32	0.59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활용

- 펀드의 결성규모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출자를 기획과정에서 출자규모에 따른 수익률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

- ➡ 결성규모별 벤치마크는 벤처펀드 결성규모별 수익성 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제1사분위, 중위값, 제3사분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펀드 출자 예상 규모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로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은 12.56%로 100억~200억 원 미만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 3.94%보다 높으므로,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

펀드 결성 규모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1,000억 원 이상	12.56%	20.91%	5.53%	-3.69%
100억 원~200억 원 미만	3.94%	7.73%	0.00%	-6.99%

펀드 결성 규모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1,000억 원 이상	1.42	1.65	1.19	0.98
100억 원~200억 원 미만	1.16	1.26	1.00	0.89

04

벤치마크 산출 시 주요 가정 및 정의

SI-IRR(Since-Inception Internal Rate of Return)

최초 펀드 납입 시부터 측정 기준시점까지의 연간 수익률로써 최초펀드 납입액, 일자별 출자납입액 및 분배액, 미청산 보유자산의 기말 순자산가치 평가액(NAV)을 현금흐름으로 투입하여 계산한다.

Pooled IRR

포트폴리오 내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고, 각 시점에 발생한 펀드들의 모든 현금흐름 및 NAV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nd-to-end IRR

임의로 지정한 시작과 끝 두 시점 사이의 성과를 측정한다. 시작 시점에서는 최초펀드 납입액 대신 기초 순자산가치 평가금액(NAV)을 납입액으로 대용한다.

결성연도

펀드의 법적성립연도이며, 펀드의 첫 번째 Closing, 혹은 첫 번째 Capital Call 시점과 같거나 그 이후이다.

투자배수(=TVPI, Total Value to Paid-In)

출자금 대비 누적 배분금 + 잔여가치 합의 비율로 펀드 전체 성과를 측정한다. (e.g. 수익배수 1.5 → 1을 투자해 0.5의 투자 초과수익을 거둠)

4분위수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4그룹으로 나눌 때, 그 그룹을 구분짓는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1~4분위수로 표시한다.

중위값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최대/최소값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최대/최소값이다.

별첨 1] end-to-end Pooled IRR

end-to-end IRR :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출자하고 배분한 금액과 잔여자산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NAV_s = \frac{CF_1}{(1+r)^{t_1}} + \frac{CF_2}{(1+r)^{t_2}} + \cdots + \frac{CF_{i-1}}{(1+r)^{t_{i-1}}} + \frac{NAV_F}{(1+r)^{t_i}}$$

의 등식을 만족하는 r (할인율, %)

NAV_s : 시작점의 순자산가치

NAV_F : 끝점의 순자산가치

- NAV(Net Asset Value) =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 투자자산 평가액 - 투자자산 장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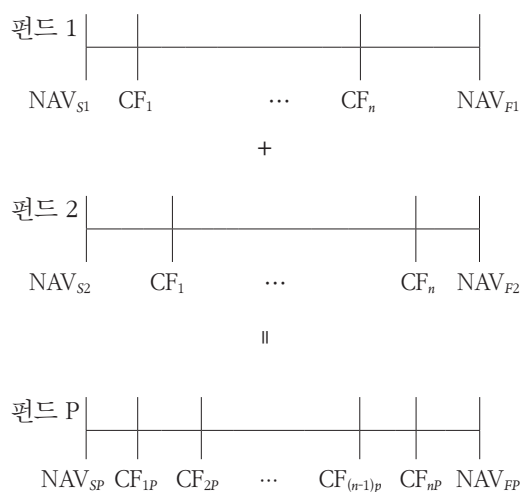
CF_i : i 시점(t_i)에 발생한 (±)현금 흐름

- NAV를 증가(자금유입)시키는 현금흐름(중간배당, 원금분배)은 양의 값(+), NAV를 감소(자금유출)시키는 현금흐름(출자금)은 음의 값(-)

t_i : CF_i 가 발생한 시점

T :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기간

〈Pooling : 펀드 1 Portfolio + 펀드 2 Portfolio + ... + = Portfolio pooled〉



e.g.) KVIC 벤처펀드의 end-to-end Pooled IRR 계산

(2022년 6월 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의 경우)

➡ 1단계

2021.06.30. 및 2022.06.30.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가치평가 금액에서 기 배분액을 차감한 펀드 보유 잔여자산의 가치(NAV)를 합산

- 2021.06.30. 및 2022.06.30. 시점의 모태 출자펀드 순자산 가치 총합(NAV):
 Σ (2021.06.30. 및 2022.06.30.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평가액 - 기 배분액)

➡ 2단계

2021.07.01.~2022.06.30. 기간에 발생한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을 취합하여 분기별 기중현금흐름으로 변환

- 방법:
 2021.07.01.~09.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08.15.로 변환,
 2021.10.01.~12.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11.15.로 변환,
 2022.01.01.~03.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02.15.로 변환,
 2022.04.01.~06.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04.15.로 변환함.
 경우 1년 총 4번의 중간현금흐름이 발생(1~3월 → 02.15. / 4~6월 → 05.15. / 7~9월 → 08.15. / 10~12월 → 11.15.)

➡ 3단계

위 4번의 현금흐름과 시작/종료시점 NAV값을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산출 (2021.06.30.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22.06.30.에 기말 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text{NAV (at 2021.06.30.)} \pm \text{CF (at 2021.08.15.)} \pm \text{CF (at 2021.11.15.)} \pm \text{CF (at 2022.02.15.)} \pm \text{CF (at 2022.05.15.)} + \text{NAV (at 2022.06.30.)}$ 의 IRR 산출

별첨 2] PME (Public Market Equivalent)

e.g.) KOSPI PME 계산 (2022년 6월 말 기준 최근 1년의 경우)

➡ 1단계

2022.06.30. 기준 과거 1년간 KOSPI 지수 증가 변동률 계산

- 산식: $((\text{KOSPI 지수(at 2022.06.30.)} / \text{KOSPI 지수(at 2021.06.30.)} - 1) \times 100\%)$

➡ 2단계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에서 계산한 2021.07.01.~2022.06.30. 기간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과 반기별 NAV, KOSPI 지수를 활용하여 시점별 배분금(DPME) 및 수정NAV(mNAV) 산출

- 산식 :

$$DPME = \left(\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mNAV_i = \left(1 - \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DPME : 수정배분금

D_i : i 시점에 발생한 배분금

NAV_i : i 시점의 순자산가치

$mNAV_i, mNAV_{i-1}$: $i, i-1$ 시점의 수정NAV

$KOSPI_i, KOSPI_{i-1}$: $i, i-1$ 시점의 KOSPI 지수 증가

C_i : i 시점의 출자금

➡ 3단계

위 배분금과 출자금 합을 순현금흐름으로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값 산출 (2021.07.0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22.06.30.에 기말 m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NAV \text{ (at 2021.06.30.)} \pm \text{Net CF (at 2021.08.15.)} \pm \text{Net CF (at 2021.11.15.)} \pm \text{Net CF (at 2022.02.15.)} \pm \text{Net CF (at 2022.05.15.)} + mNAV \text{ (at 2022.06.30.)}$ 의 IRR을 산출

※ KOSDAQ PME 계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나, KOSPI 지수 대신 KOSDAQ 지수로 산출



MarketWatch

3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기업 분석

모태조합 출자펀드 투자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2022년 6월 기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포트폴리오 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01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현황

들어가며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로 상상의 동물이다. 이런 상상 속 동물의 명칭이 붙은 유니콘 기업이란 무엇일까? 유니콘 기업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카우보이 벤처스'의 창업자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현재는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상장기업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s가 집계하는 「The 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2022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209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는 USD 3,908 billion에 달한다. 이 중 한국 기업은 15개이며(토스, 옐로모바일, 컬리, 트릿지, 위메프, 무신사, 직방, 메가존클라우드, 버킷플레이스, 리디, GP클럽, 엘애피코스메틱, 야놀자, 에이프로젠, 아이지에이웍스) 이들의 총 기업가치는 USD 34 billion을 기록하고 있다.

KVIC MarketWatch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유니콘과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보 기업들의 특징을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들의 2022년 6월 말 기준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기업 중 유니콘 및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한 유니콘 후보 기업들의 기업가치, 투자금액, 업종, 업력, 매출액 분포 등을 분석했다. 기업가치 기준으로 크게 세 개의 구간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반기별 추세 정보도 포함했다.

이하 유니콘은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중 1조 원 이상 그룹에 속해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 기업

지난 가치평가 기준일(2021년 12월) 대비 2022년 6월 유니콘 및 기업가치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개수는 44개 증가해(62개 신규진입, 18개 제외) 총 153개 기업이었다. 이 중 1조 원 이상 기업은 22개,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20개,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기업은 111개로 모든 구간에서 직전 반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체 그룹에서 제외된 기업은 총 18개로 대부분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그룹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그룹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별기업들의 기업가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가치

153개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 값은 6,965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상 기업들의 평균 기업가치 대비 약 7.6% 하락, 중간값은 3,265억 원으로 4.0% 하락한 수준이었다.

기업가치는 다소 하락한 수준이지만, 대상기업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조 원 이상의 그룹이 7개 증가하였으며, 특히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의 36개 증가, 총 111개로 3자리 수를 돌파한 것이 특징이다.

그룹별로 평균 기업가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1조 원 이상의 그룹에서는 기업가치가 전년 대비 13.1% 감소하였으며,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의 그룹에서는 0.8% 감소, 2천억 원 이상 ~ 5천억 원 미만 그룹에서는 0.6%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1조 원 이상의 그룹에서의 기업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이 전체 기업가치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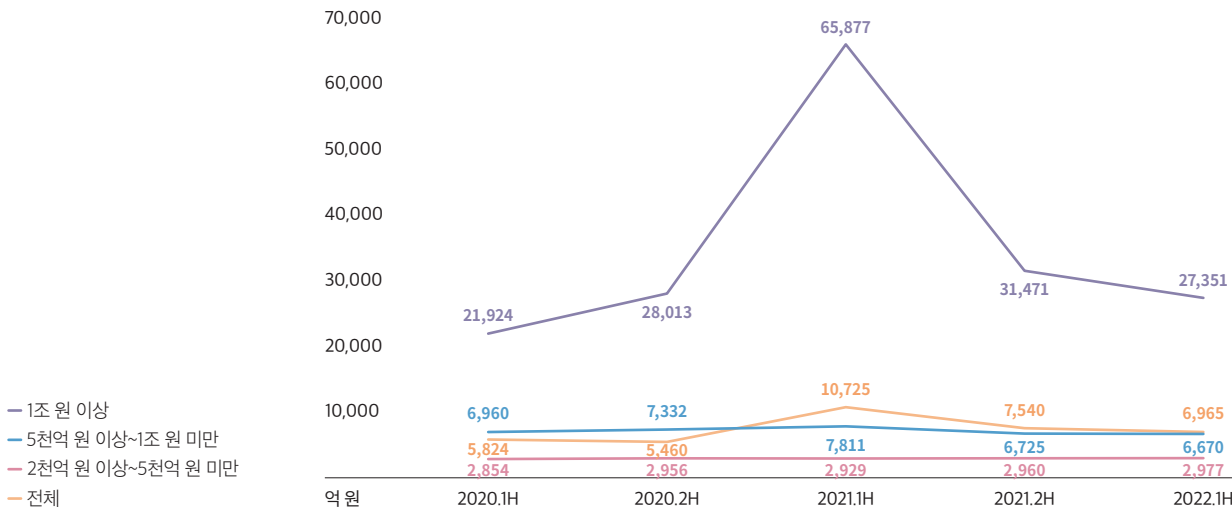
표 1 — 2022년 6월 말 기준 기업가치 분포

(단위 : 개)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 2021년도 동기 대비 증가 개수, ▼ 감소 개수)		
1조 원 이상	22(▲7)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20 (▲1)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9천억 원~1조 원	1(▼1)
		8천억 원~9천억 원	4(▲2)
		7천억 원~8천억 원	2(▼4)
		6천억 원~7천억 원	4(▼3)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111 (▲36)	5천억 원~6천억 원	9(▲7)
		4천억 원~5천억 원	16(▲5)
		3천억 원~4천억 원	31(▲11)
		2천억 원~3천억 원	64(▲20)
총계	15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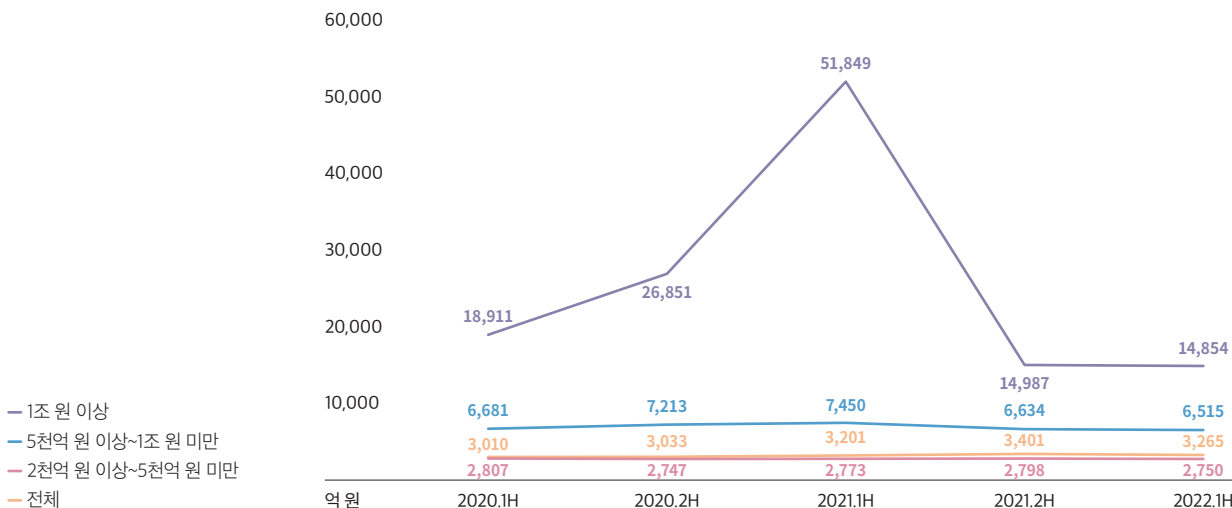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1 — 기업가치 평균값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2 — 기업가치 중간값 추이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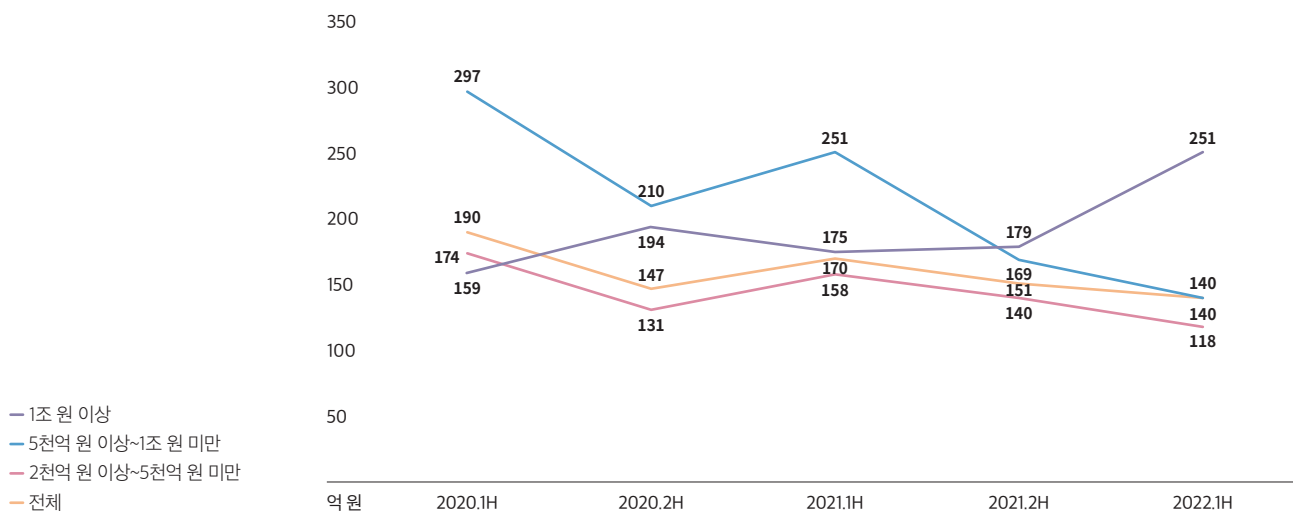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의 출자펀드는 분석 대상인 153개 기업에 2022년 6월 말까지 총 2조 1,48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한 개 기업당 평균 14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금액과 평균 투자금액은 직전 반기 대비 각각 30.9% 증가, 6.8% 하락한 것이다. 이는 총 투자금액이 늘었지만 분석 대상 기업은 더 크게 늘어 평균 투자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그룹별로 보면 1조 원 이상 유니콘 그룹의 평균 투자금은 251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40.1% 상승하여 세 그룹 중 유일하게 상승하였다.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은 140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7.1% 하락,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은 118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5.4% 하락하였다.

이번 반기에는 1조 원 이상 유니콘 그룹의 평균 투자금액이 특히 높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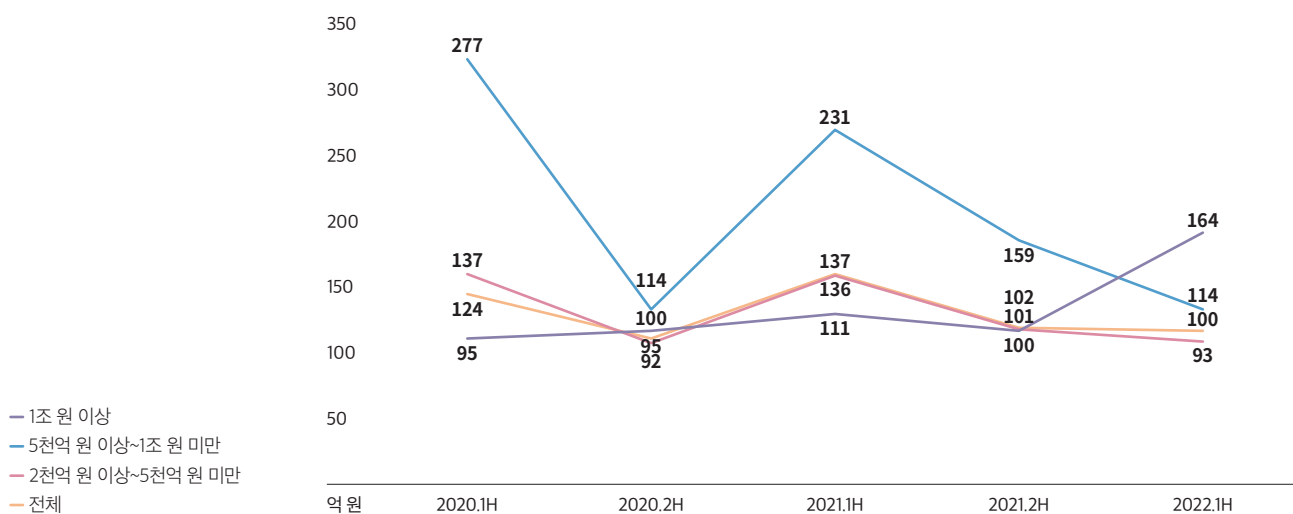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3 — 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 출자펀드 투자금 평균값 추이



출처 한국벤처투자

그림 4 — 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 출자펀드 투자금 중간값 추이



업종

한국벤처투자의 업종분류 기준(상세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업종분류 기준 소개 페이지 참고)에 따라 투자기업을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니콘 및 후보 기업이 가장 많이 탄생한 산업은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 서비스였다. 전체 153개 기업 중 ICT서비스 57개(37.3%), 바이오/의료 34개(22.2%), 유통/서비스 27개(17.6%)로 3개의 산업이 77.1%를 차지했다. 이 세 개의 업종은 직전 반기에도 82.6% 수준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19년도에도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규 진입 기업 44개 중 12개가 ICT서비스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의료 산업 6개, 유통/서비스 산업 10개가 신규로 진입하였다. 신규 진입 기업에서도 이 세 개의 업종이 63.6%(28개)의 비중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어서 기타 7개, 게임 3개, 전기/기계/장비 3개, 화학/소재 2개, ICT제조 1개 등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반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기타 부문에서 총 7개가 신규로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섬유/의복/가죽 3개, 금융, 부동산/임대 부문이 각 2개씩 증가하여 기업들의 사업 분야가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한국벤처투자 산업 분류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산업 분류	기업 개수 (▲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개수, ▼ 감소한 개수임)		
		세부 분야 분류	기업 개수
ICT서비스	57(▲12)	소프트웨어	34(▲5)
		정보서비스	22(▲6)
		통신	1(▲1)
바이오/의료	34(▲6)	의료용물질/의약품	27(▲9)
		의료기기	7(▼3)
유통/서비스	27(▲10)	도소매업	16(▲7)
		전문서비스	6(-)
		교육	2(▲1)
		운수	2(▲1)
		숙박/음식업	2(▲1)
기타	10(▲7)	섬유/의복/가죽	3(▲2)
		금융	3(▲2)
		부동산/임대	2(▲1)
		음식료	2(▲2)
게임	8(▲3)	게임소프트웨어	8(▲3)
전기/기계/장비	8(▲3)	전기장비	5(▲2)
		정밀기기	2(▲1)
		운송장비/부품	1(▲1)
화학/소재	5(▲2)	화학물질/제품	4(▲2)
		금속	1(-)
ICT제조	3(▲1)	반도체/전자부품	2(-)
		컴퓨터/주변장치	1(-)
영상/공연/음반	1(-)	출판/방송	1(▲1)
총계			153(▲44)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0(▲7)	과실류 도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3(▲3)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1(-)
전자상거래 소매업	7(▲3)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6(▲2)	기타 부동산 임대업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4)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5(▲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4)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1)	기억 장치 제조업	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1(▲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2)	광고 대행업	1(▲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1(▲1)
축전지 제조업	2(-)	상품 종합 도매업	1(▲1)
기타 금융 투자업	2(▲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1)
화장품 제조업	2(-)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2)	기타 전문 서비스업	1(▲1)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1)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2)	여행사업	1(▲1)
통신 재판매업	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1(-)	건축물 일반 청소업	1(▲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1(-)	일반 창고업	1(▲1)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1(▲1)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1)
뉴스 제공업	1(-)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1(-)	제과점업	1(▲1)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1)
자동차 임대업	1(▲1)		

업력

분석 대상 153개 기업들의 2022년 6월말 현재 업력 평균은 8.7년으로 직전 반기에 분석한 109개 기업 업력의 평균값 대비 0.3년 증가했다. 기업가치별로 1조 원 이상 기업의 업력 평균 10.2년,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8.5년,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기업은 8.4년이였다. 모든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 최솟값은 0.6년, 최댓값은 28.2년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4 — 2022년 6월 말 업력 현황

(단위 : 년)

기업가치 분류	업력 평균	업력 최댓값	업력 최솟값
	(▲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업력, ▼ 감소한 업력)		
1조 원 이상	10.2(▲0.6)	19.3(▲0.5)	1.5(▲0.5)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8.5(▲0.2)	20.4(▼0.7)	3.3(▲0.5)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8.4(▲0.3)	28.2(▲1.1)	0.6(▼0.4)
전체	8.7(▲0.3)	28.2(▲1.1)	0.6(▼0.4)

소고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자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유니콘 후보 기업들을 대표하는 특징을 하나의 기업으로 표현하자면, 업력 8.7년의 기업으로, 한국벤처투자 출자펀드로부터 251억 원을 투자받아 6,965억 원의 기업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반기에는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들 중 18개의 이탈이 있었는데, 대부분 상장 및 인수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들의 기업가치 성장에 따라 그룹 간 이동이 있었으며, 44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며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평균 기업가치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새롭게 진입한 대상기업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장의 성장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반기마다 업데이트될 상기 유니콘 기업 및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 설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02

참고]

한국벤처투자 업종분류 기준 소개

당사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9개 산업과 36개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산업(9개)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게임,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기타

산업 내 세부 분야(36개)

의료용물질/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표 5 — 한국벤처투자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 분류

산업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	의료기기 의료용물질/의약품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산업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게임
분야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산업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분야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산업	기타		
분야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기타	

MarketWatch



4

해외 VC 시장 동향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3년 1분기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01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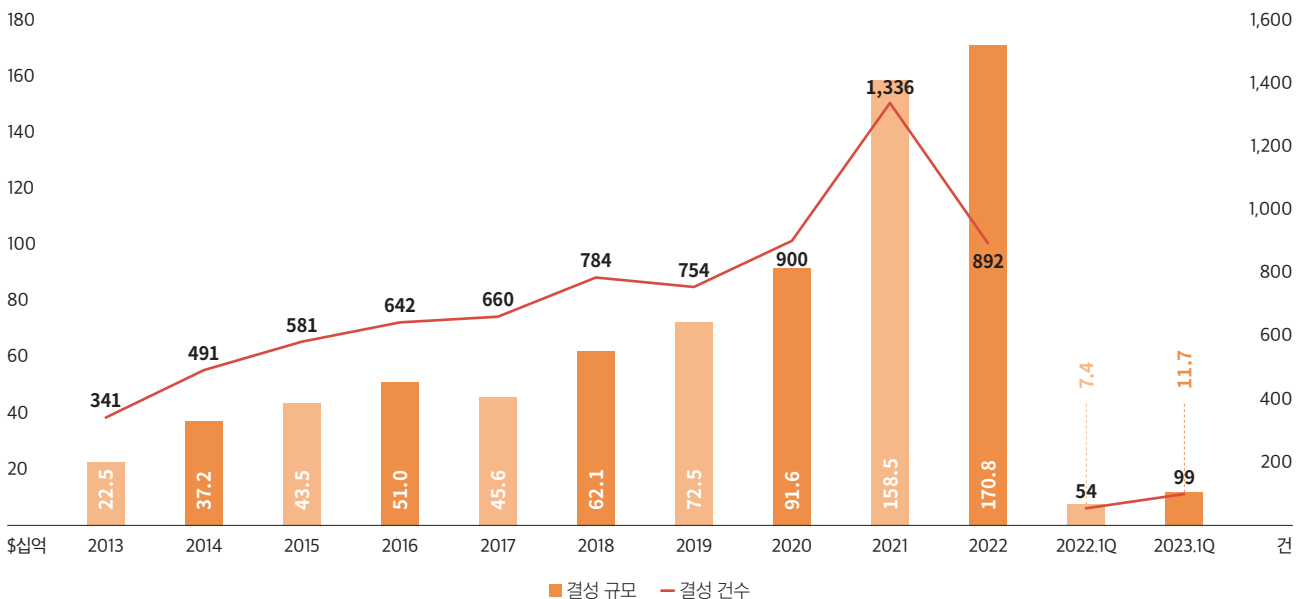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

결성(Fundraising)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3년 1분기 동안 99개의 펀드에서 총 117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결성규모와 결성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VC펀드결성에 대한 전망은 암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금조달 및 IPO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여 펀드 결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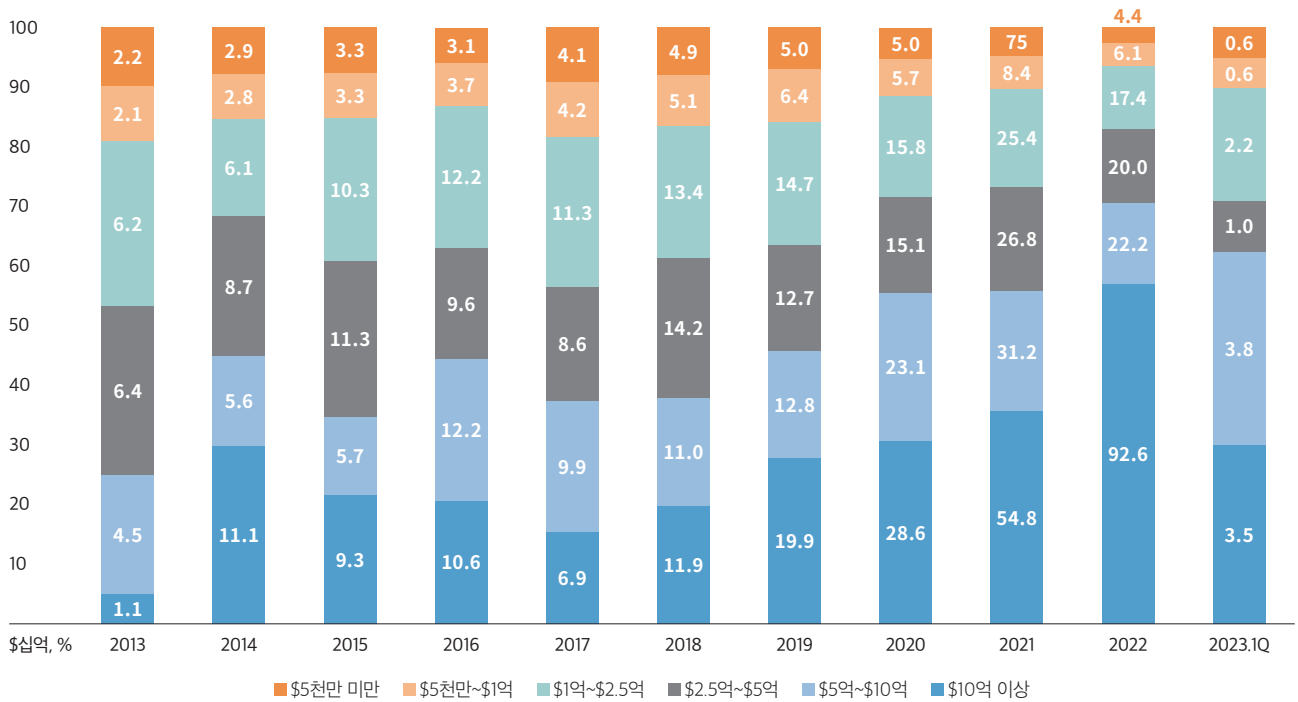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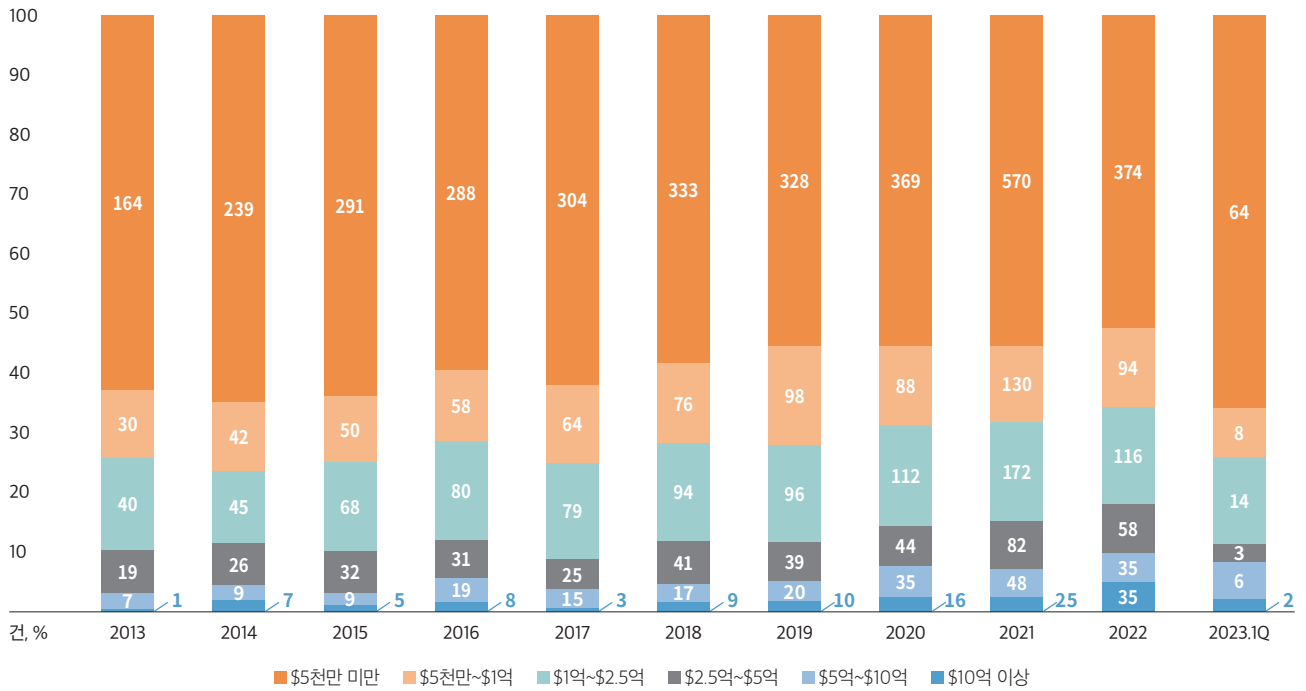
그림 1 — 미국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한편, 2023년 1분기에 결성된 펀드의 결성규모 구간별 비중을 보면, 결성액의 62.8%가 5억 달러 이상의 대형펀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험 많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신흥 운용사가 결성한 펀드의 트랙레코드와 비교 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약정액의 86.1%에 달하는 100억 달러가량이 기존 운용사가 주도하는 펀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흥 운용사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트랙레코드를 보유하지 못한 운용사 간 자금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 미국 VC 펀드 결성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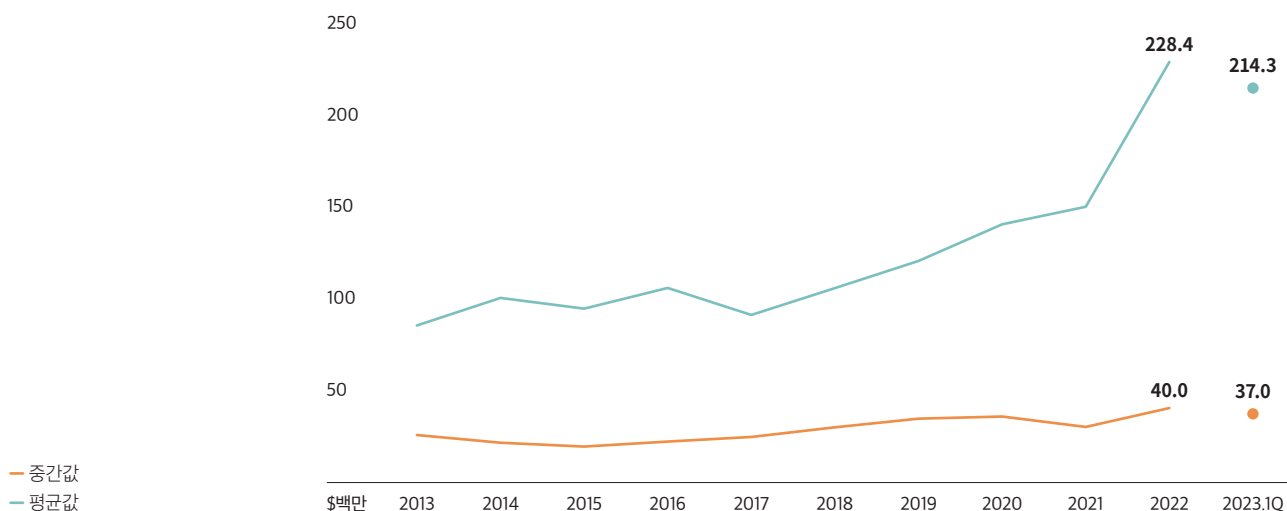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VC 펀드의 결성 규모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1분기의 펀드 결성 규모의 중간값과 평균값은 각각 3,700만 달러 및 2억 1,43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4,000만 달러 및 2억 2,840만 달러에 비해 각각 7.5%, 6.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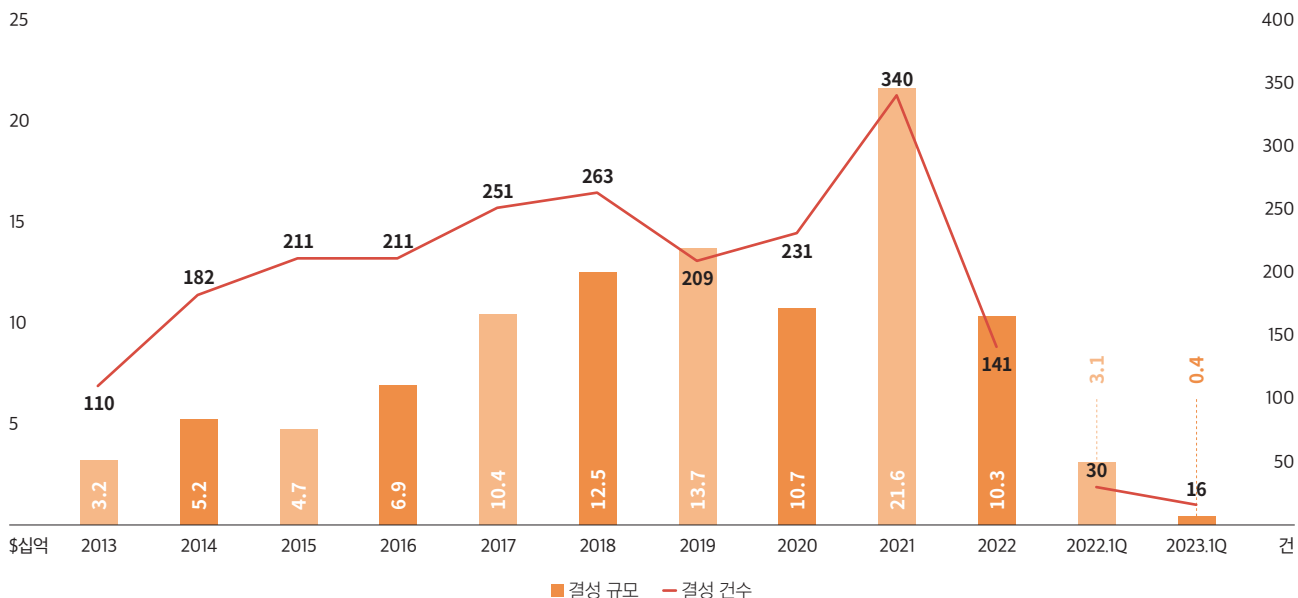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3 — 미국 VC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펀드의 결성규모 감소추세는 최초 펀드결성(first-time fundraising)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초 펀드결성은 0.4억 달러(16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3.1억 달러(30건)에 비해 87.6%(46.7%)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4 — 미국 VC 최초 펀드결성(First-time fundraising)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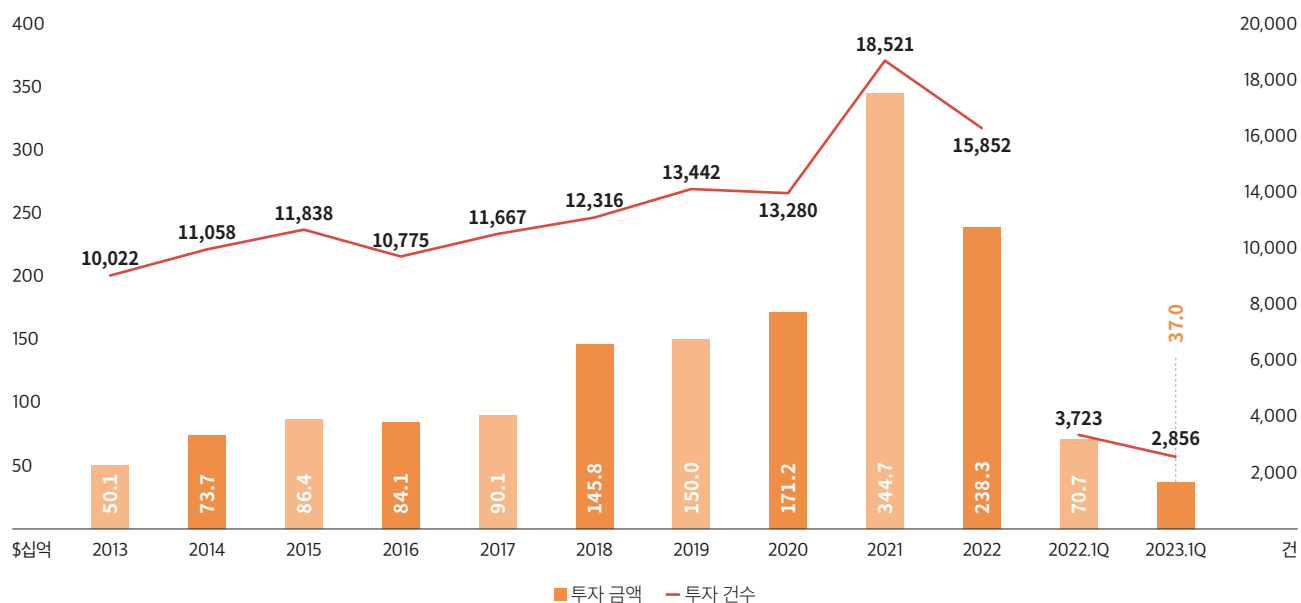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투자(Deal)

2023년 1분기 동안 미국에서는 370억 달러(2,856건)의 투자 활동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707억 달러(3,723건)의 투자에 비해 47.7%(23.3%) 감소한 수치이다. 투자활동이 대폭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VC투자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이자율, SVB의 파산 등 잠재적인 위험 속에서 투자활동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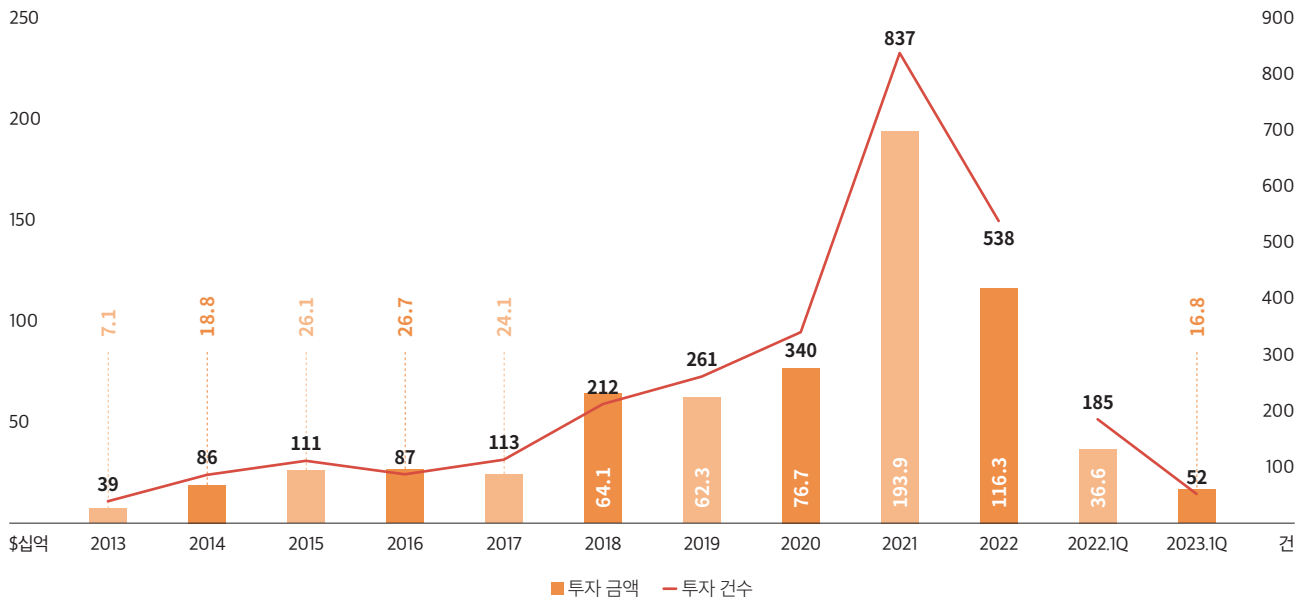
그림 5 — 미국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의 메가-라운드는 168억 달러(52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66억 달러(185건)에 비해 54.1%(71.9%) 감소하였다. 메가-라운드 역시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대폭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인 성장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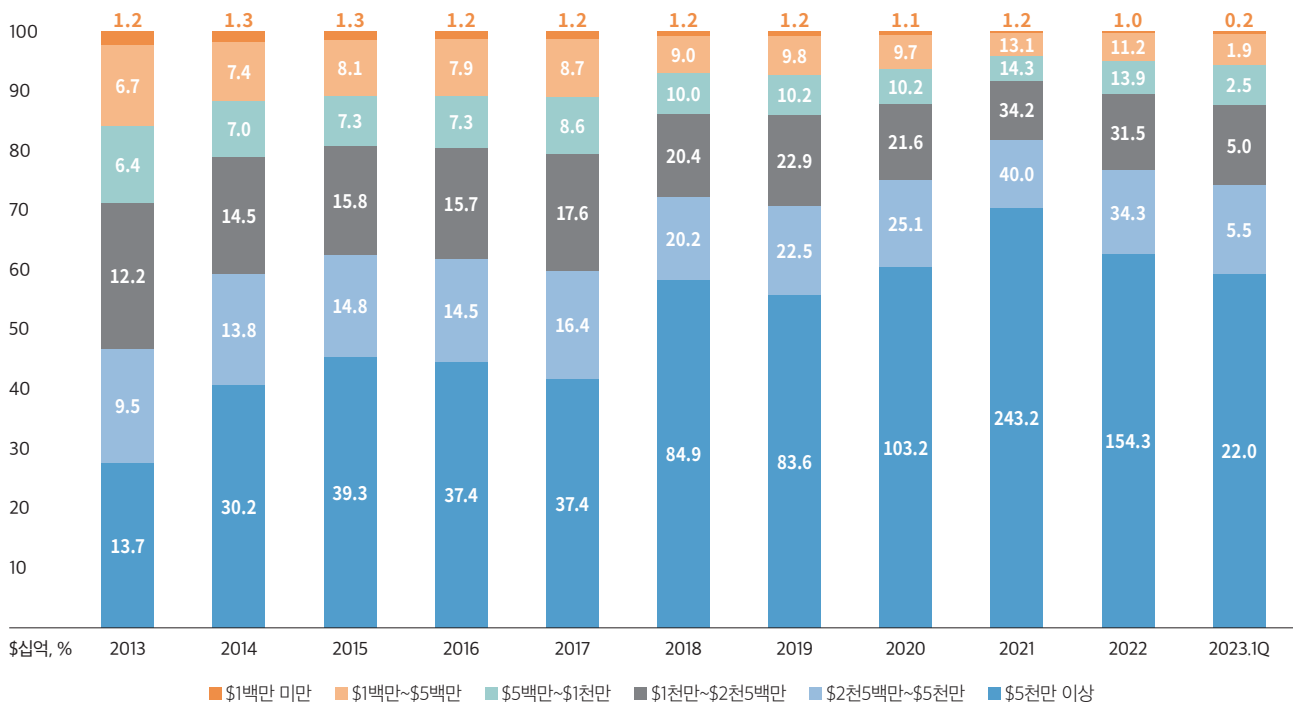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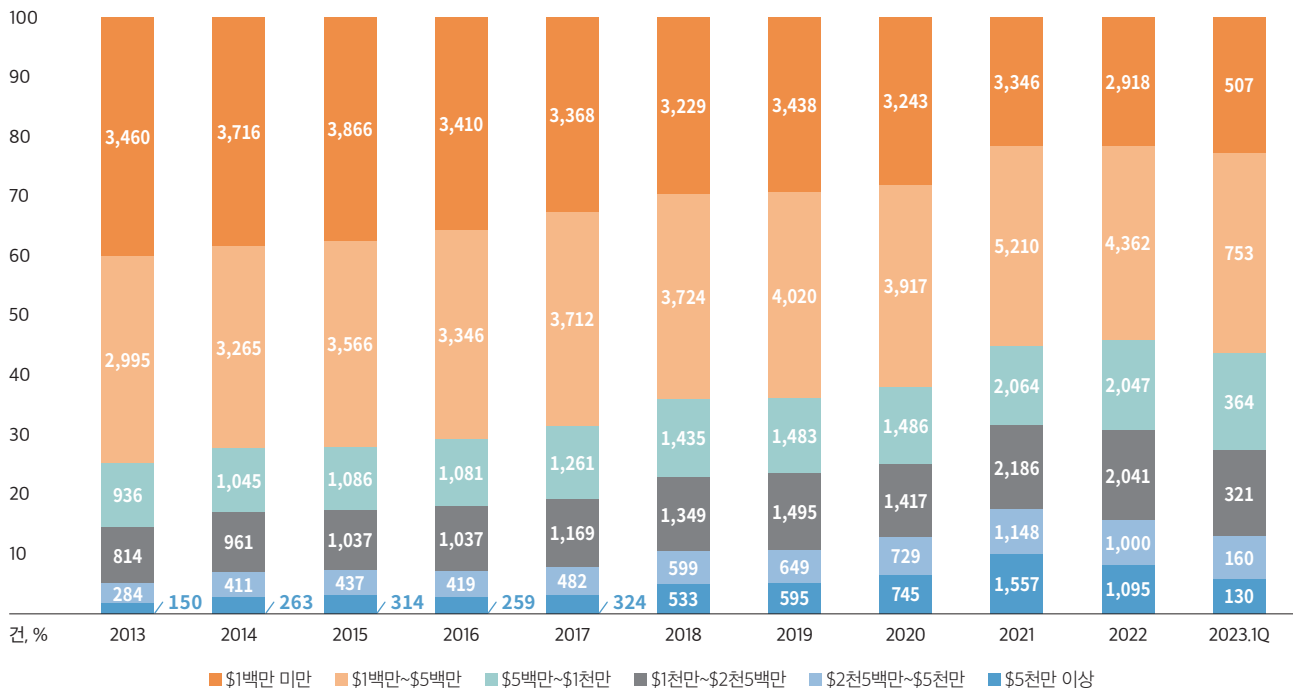
그림 6 — 미국 VC 메가-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 미국의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00만 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5.8%, 금액 합계 기준으로 59.4%이다. 이는 여전히 대형 투자가 VC 규모별 비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 미국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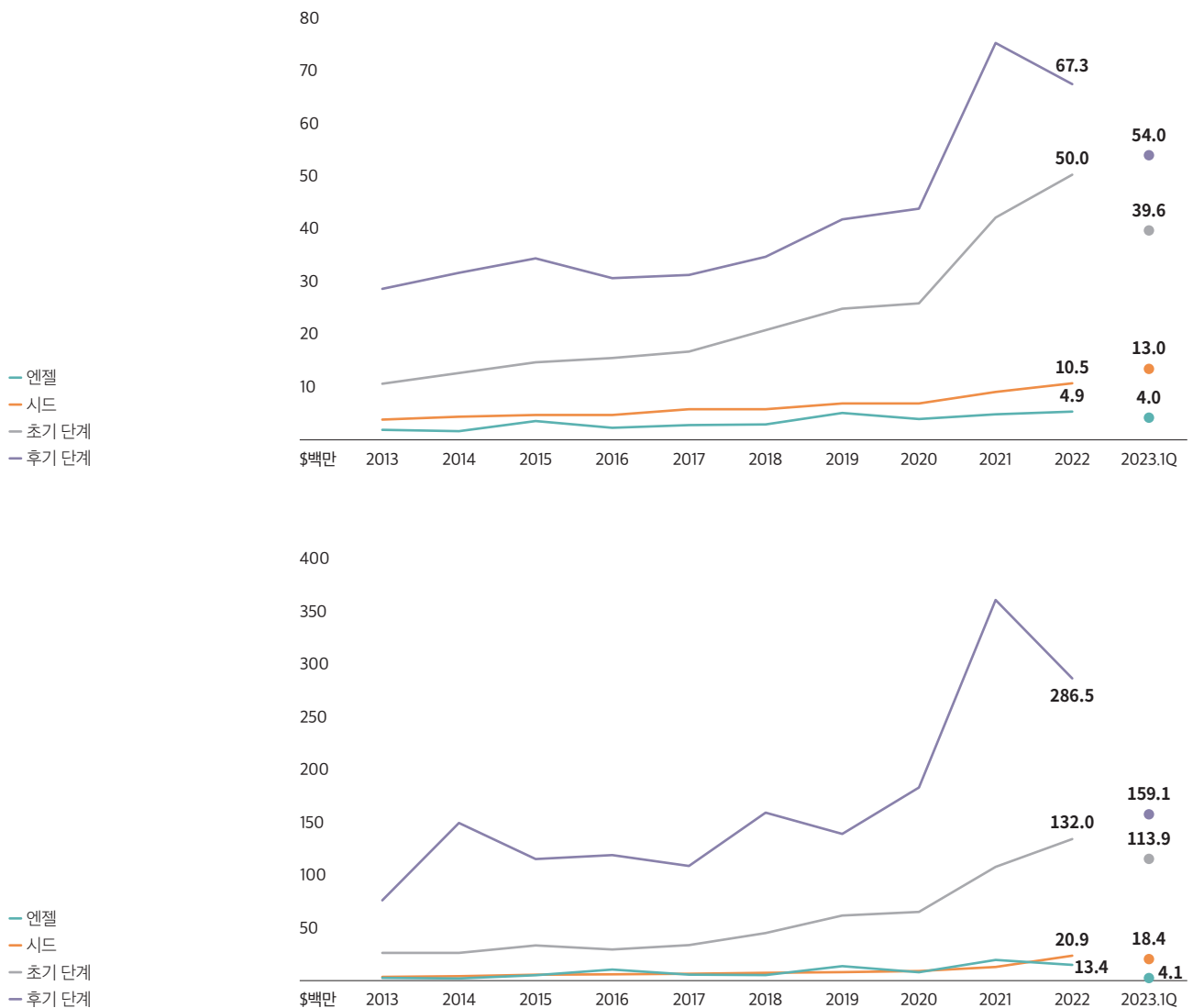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의 VC 단계별 기업가치의 중간값 및 평균값 데이터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시드 단계의 중간값을 제외하면 모든 단계의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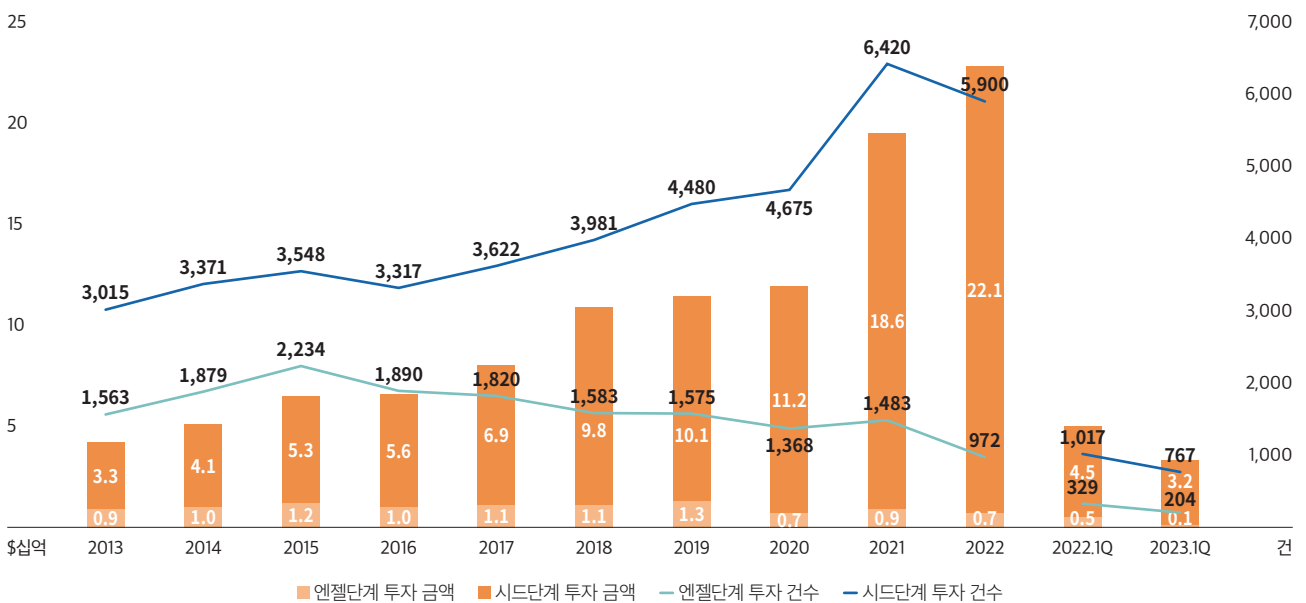
그림 8 — 미국 VC 단계별 기업가치 중간값(상)/평균값(하)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및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2023년 1분기의 엔젤 단계에서는 1억 달러(204건), 시드 단계에서는 32억 달러(767건)가 투자되었다. 엔젤 단계의 경우 전년 동기 5억 달러(329건)의 투자에 비해 90.3%(27.9%) 감소하였으며, 시드 단계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45억 달러(1,017건)의 투자에 비해 38.0%(24.6%) 감소하였다. 특히 엔젤단계의 투자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VC투자의 가장 초기 단계 역시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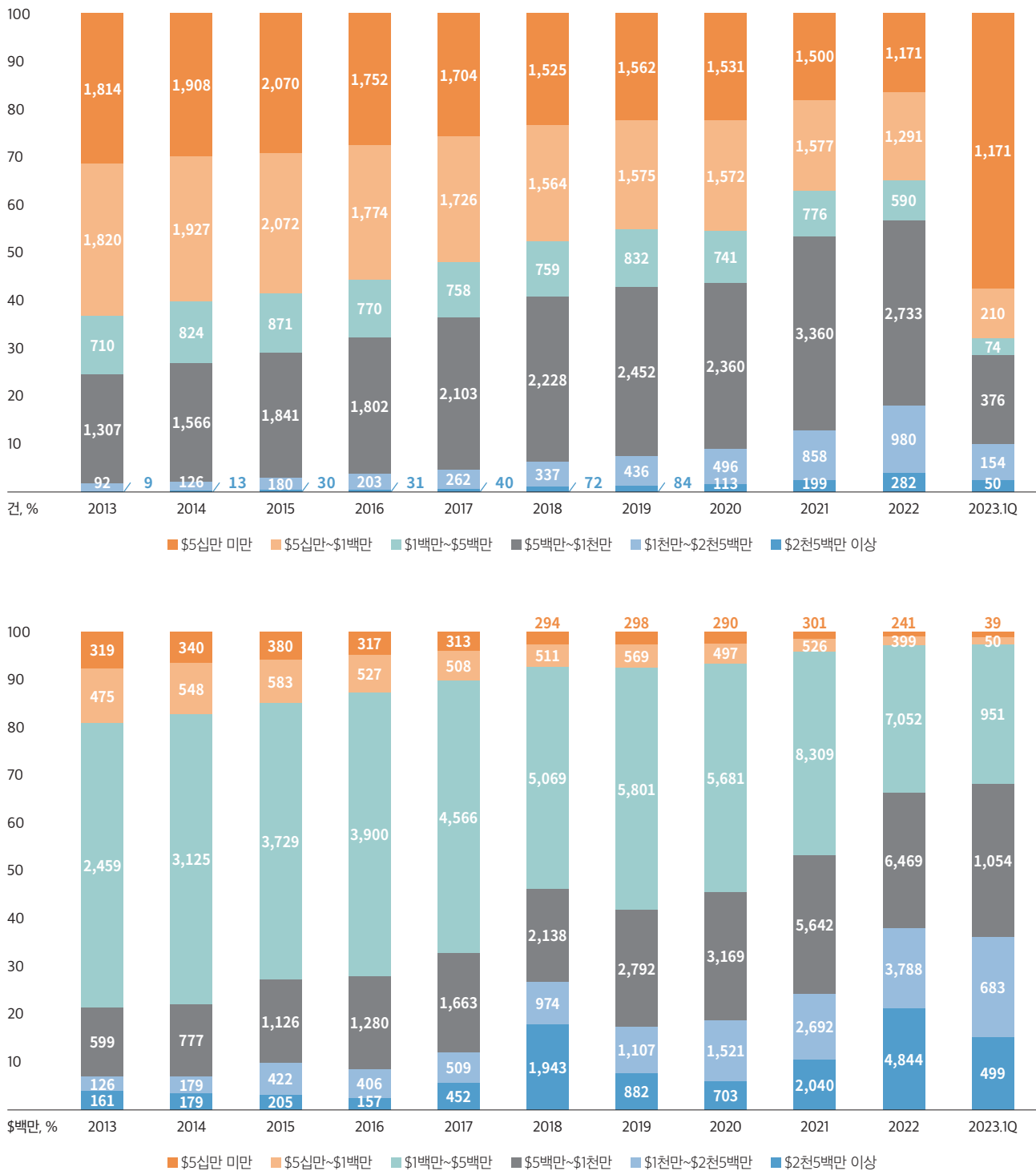
그림 9 —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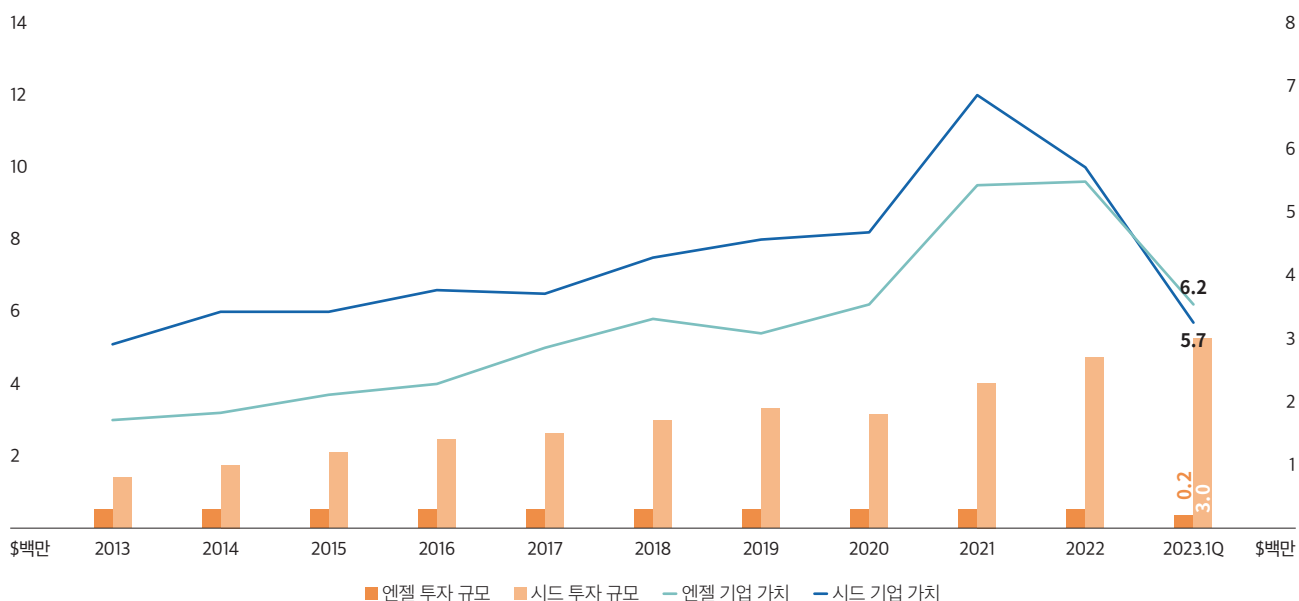
엔젤/시드 단계에서의 특징은 근래의 2천5백만 달러 이상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2023년 1분기는 5십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1.2%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5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그림 10 — 미국 엔젤/시드 단계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엔젤/시드 투자의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엔젤/시드 단계의 기업가치 중간값은 각각 620만 달러, 57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 비해 각각 35.4%, 43.0% 하락하였다. 하지만, 시드단계의 투자규모 중간값은 300만 달러로 9.3%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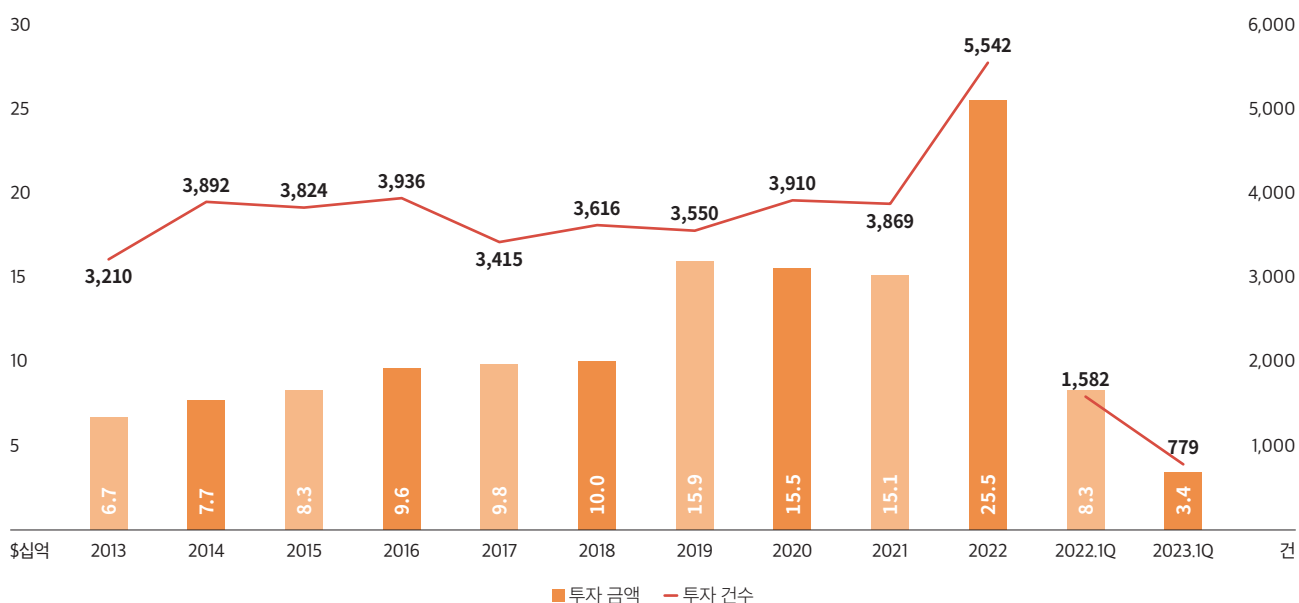
그림 11 — 미국 엔젤/시드 투자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 규모(우) 중간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에는 779개의 스타트업이 34억 달러를 최초로 투자 유치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의 1,582개사가 83억 달러 투자 유치 대비 각각 50.8%, 58.9% 감소하여, 최초 투자 유치 스타트업의 수와 투자금액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리인상 등의 대외환경으로 벤처 투자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시장을 지배하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운 환경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12 — 미국 VC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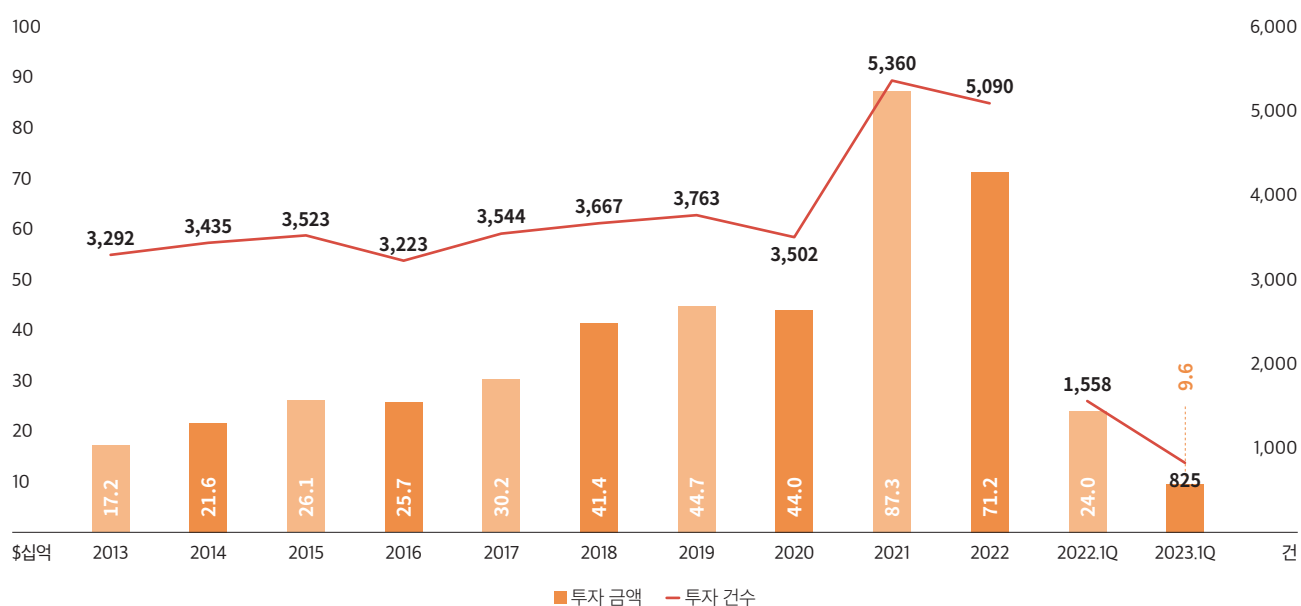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2023년 1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96억 달러(825건)의 VC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 동기 24억 달러(1,558건)에 비해 59.8%(47.0%) 하락한 수치이다. 경기침체는 VC의 모든 단계에서 투자 활동에 하방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와 같은 사건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특히 큰 우려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VC투자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단계로 높은 수준의 거래감소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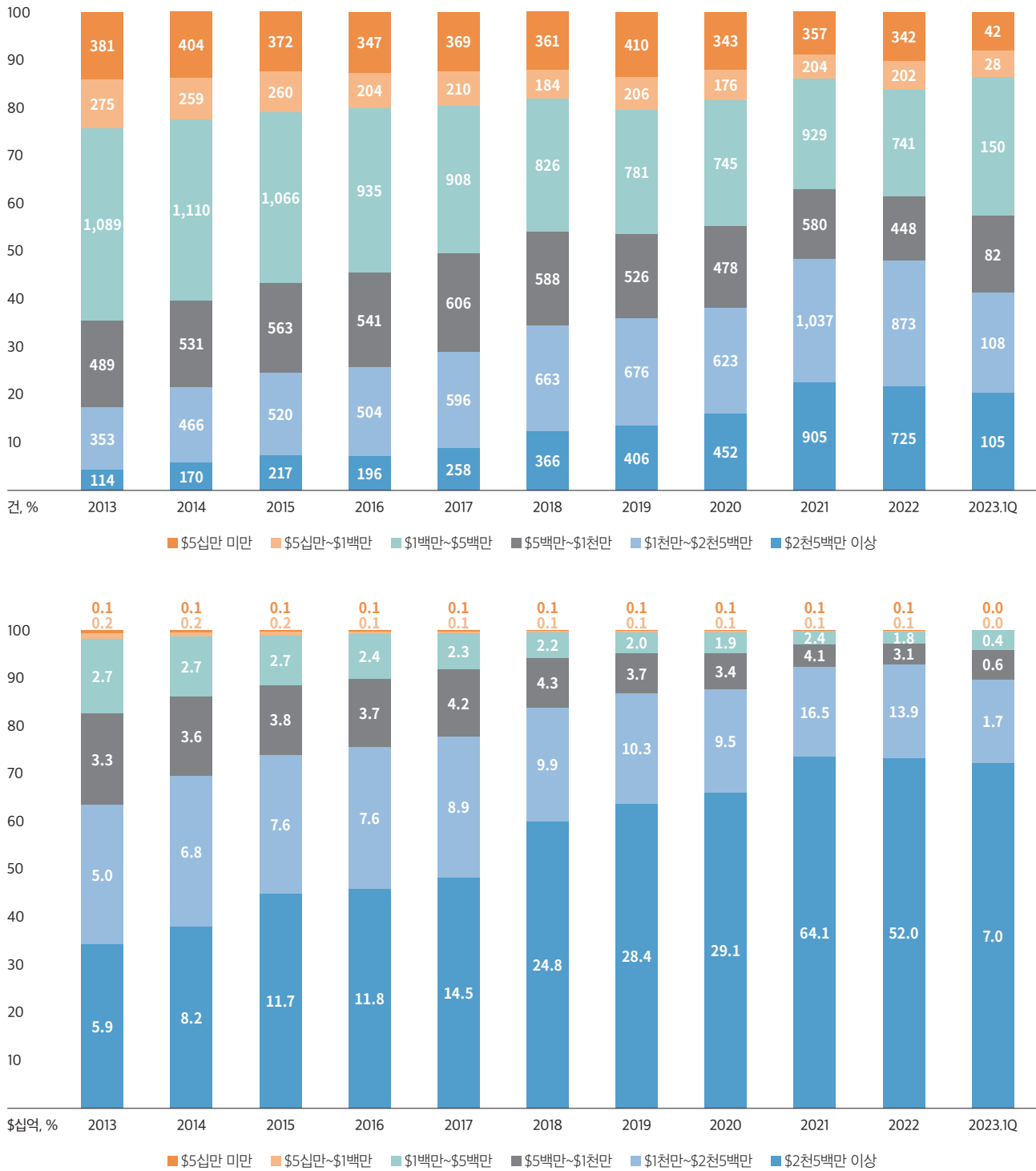
그림 13 — 미국 초기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초기 VC 투자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72.5%, 건수 기준으로도 20.4%를 보여주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림 14 — 미국 초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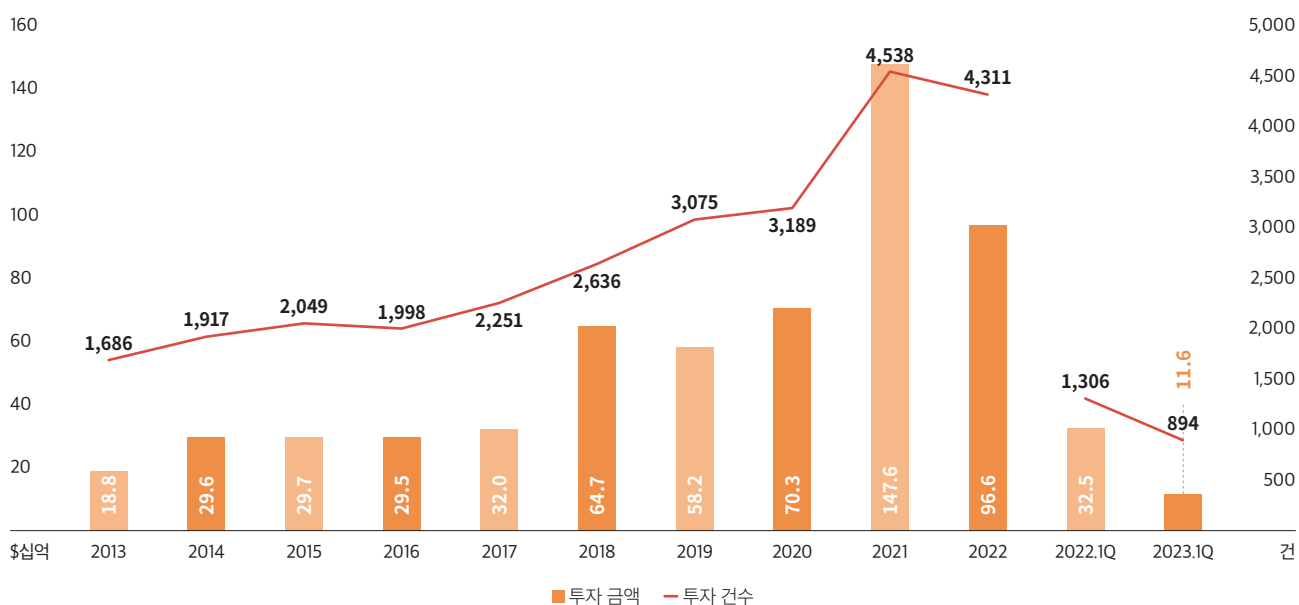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2023년 1분기의 후기 단계에서는 116억 달러(894건)의 VC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 동기 325억 달러(1,306건)에 비해 64.2%(31.5%) 하락한 수치이다. 투자금액 및 투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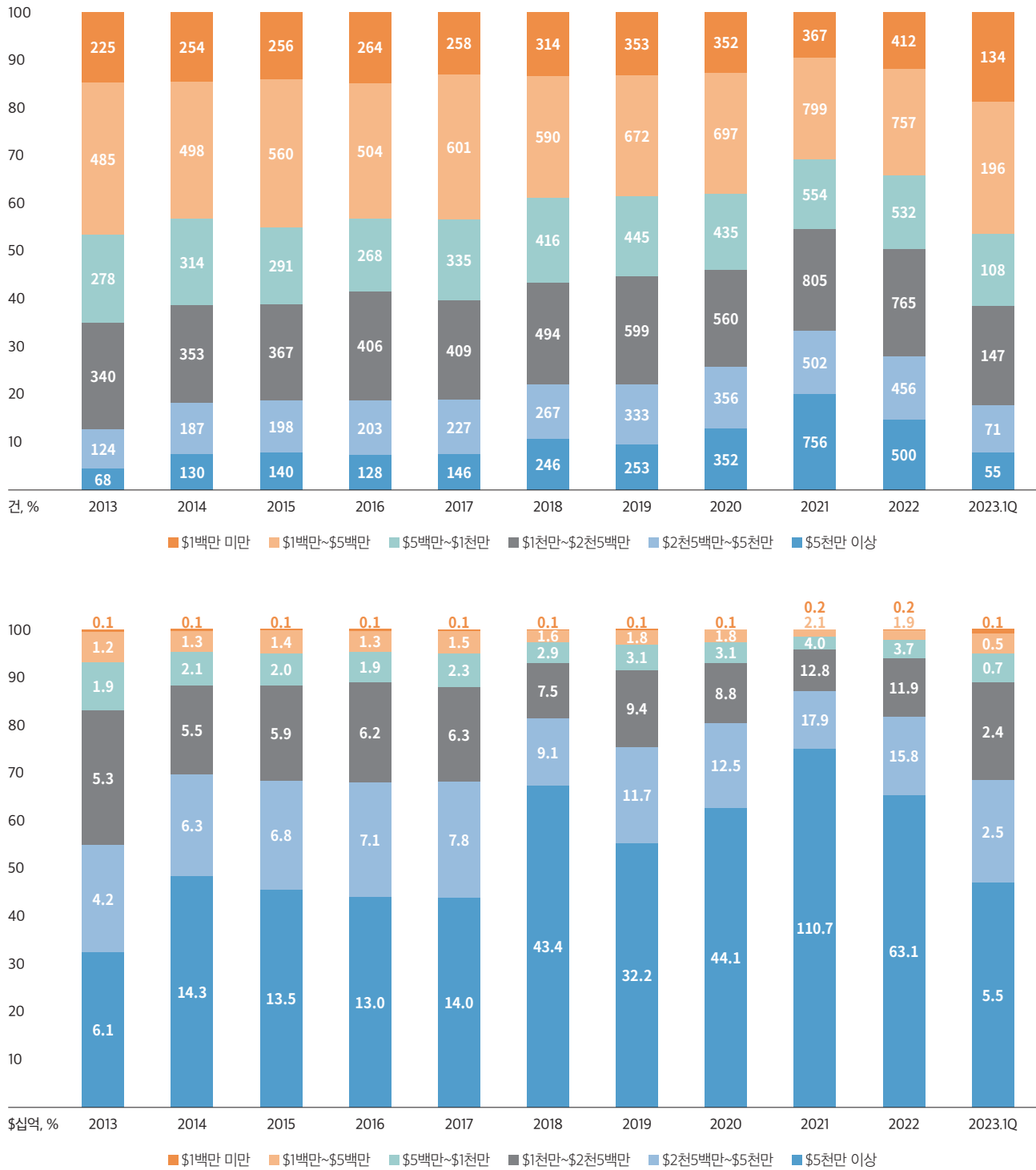
그림 15 —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후기 단계의 VC 투자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7.7%, 금액 기준으로 46.9%를 차지하였다. 최근 5년 동안(2018년~2022년) 후기단계의 VC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55%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앞으로는 특히 IPO시장에서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로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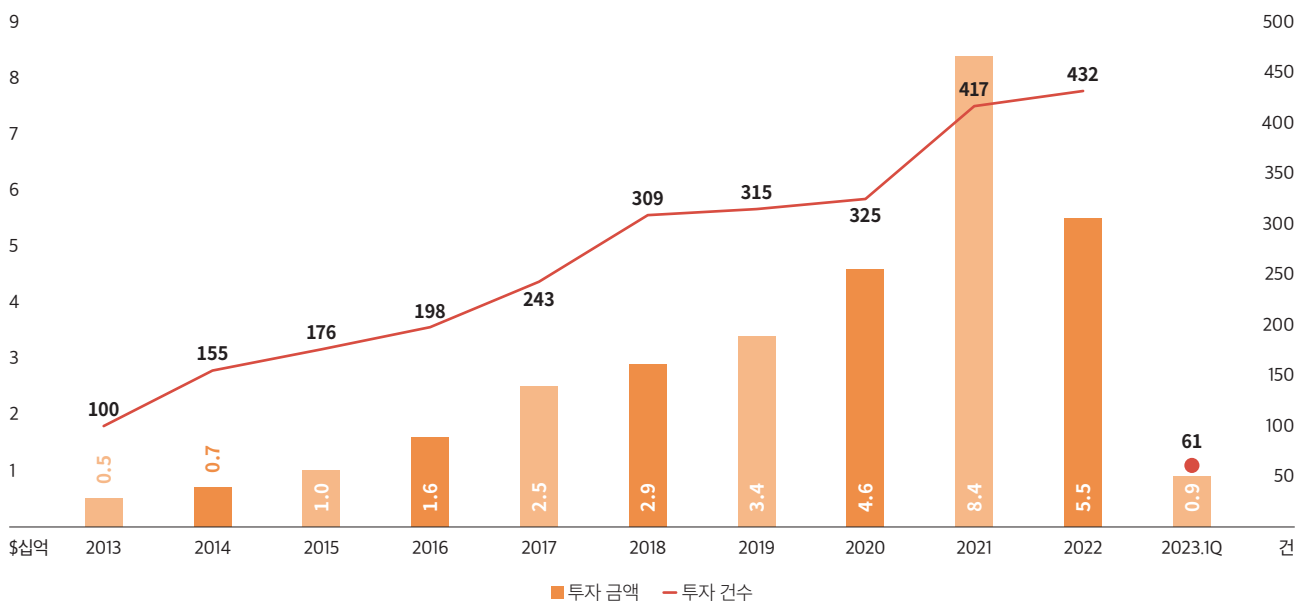
그림 16 — 미국 후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분야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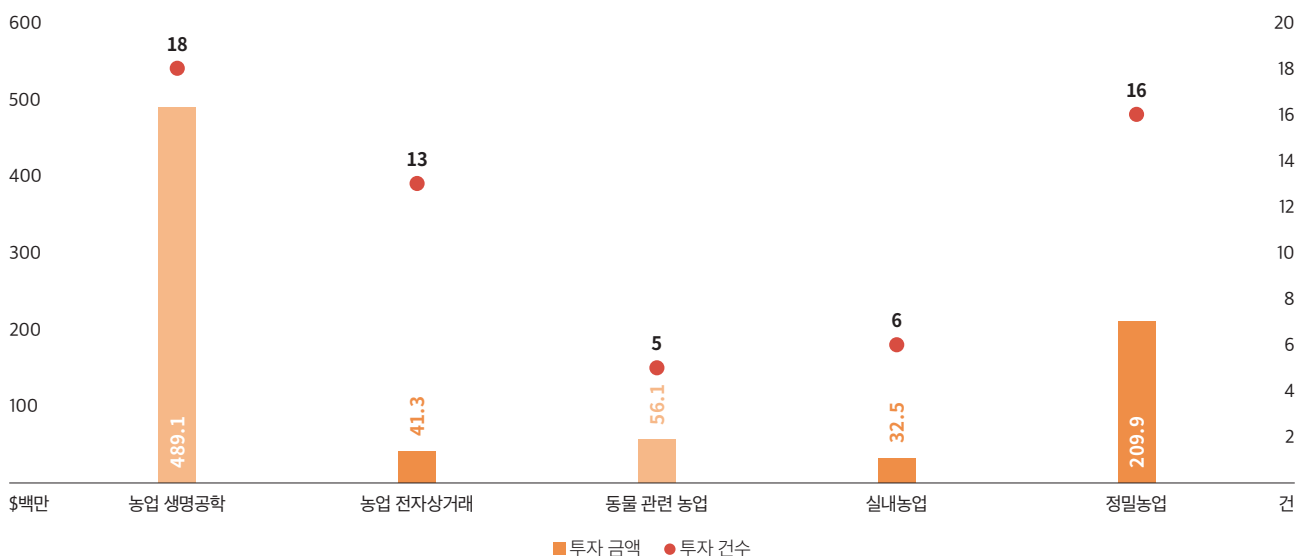
2023년 1분기의 농업기술(AG테크) 분야에서 9억 달러(61건)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추세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 분야별로 살펴 보면, 농업 생명공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내농업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7 — 미국 VC AG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18 — 1분기 미국 VC AG테크 분야별 투자 투자금액 및 투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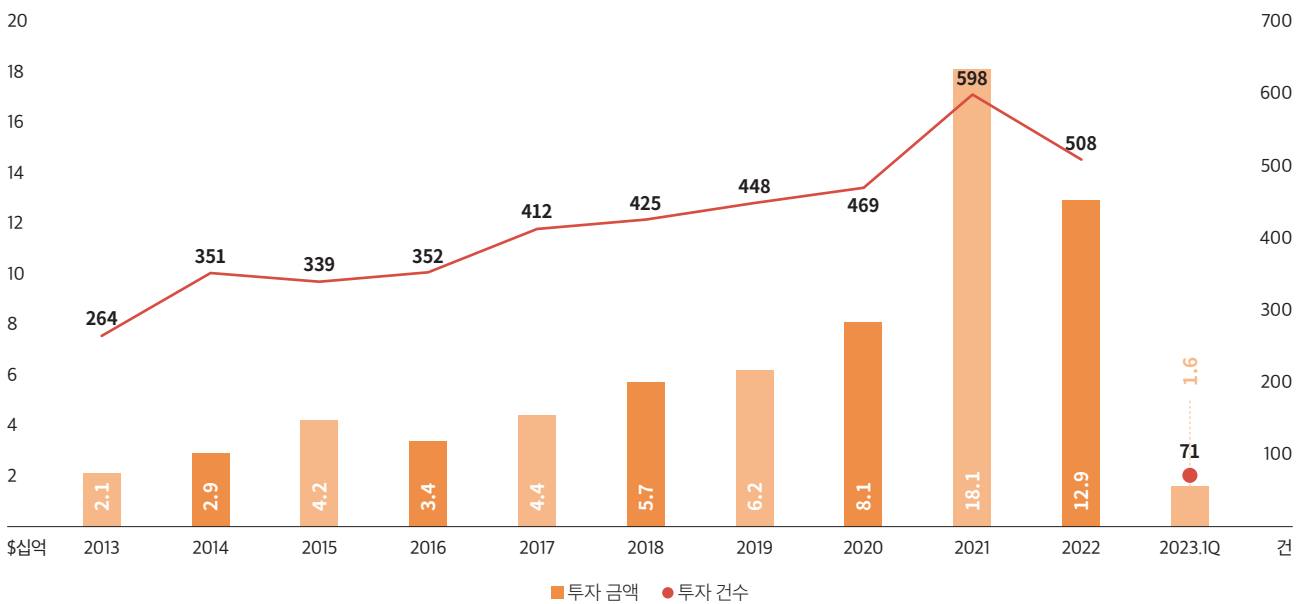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 엔드포인트: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지칭하며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프린터 등이 대표적 사례로, IoT 디바이스의 증가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스마트워치, 센서, 의료디바이스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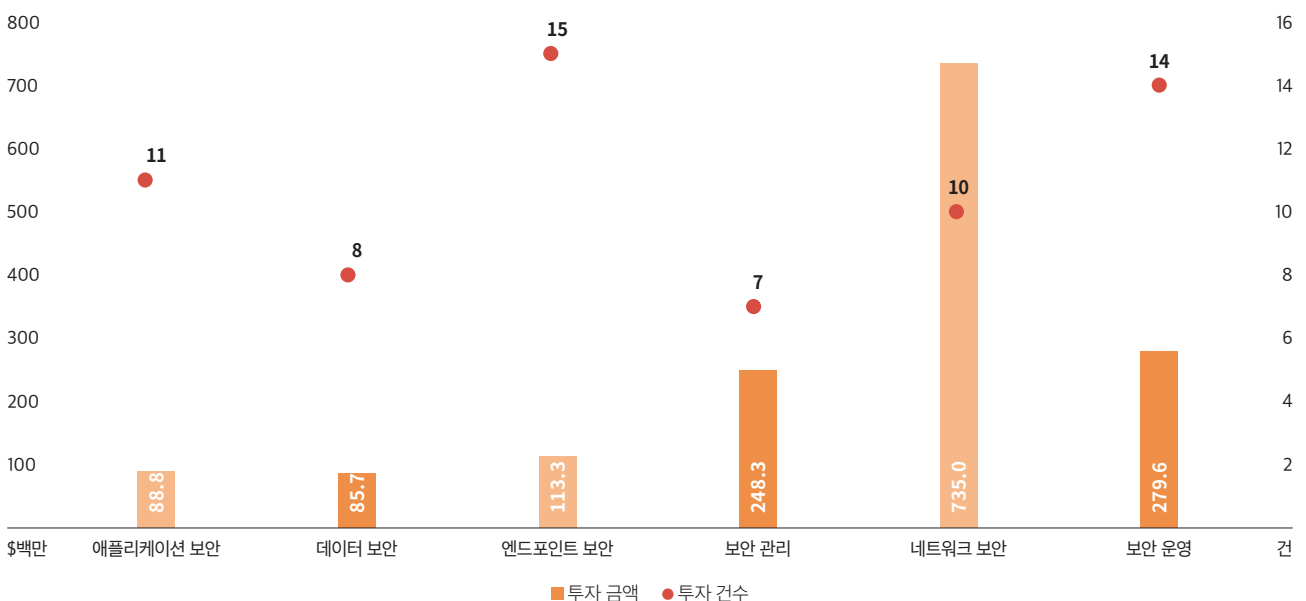
2023년 1분기의 정보보안(Infosec) 분야에서 16억 달러(71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마찬가지로 과거 추세와 비교 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금액과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보안 분야가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엔드포인트* 보안 분야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림 19 — 미국 VC Infosec(정보보안)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0 — 1분기 미국 VC Infosec(정보보안) 분야별 투자 투자금액 및 투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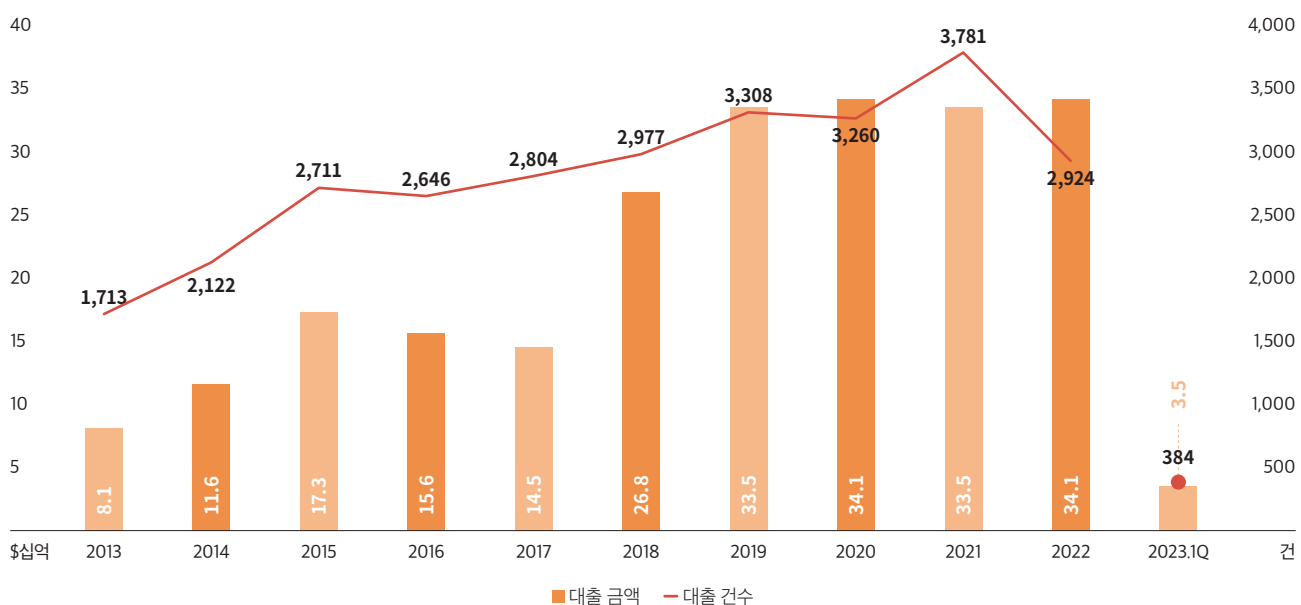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벤처대출 현황

* 벤처성장 단계: 시리즈 E 이상의 투자유치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VC 투자유치를 받은 단계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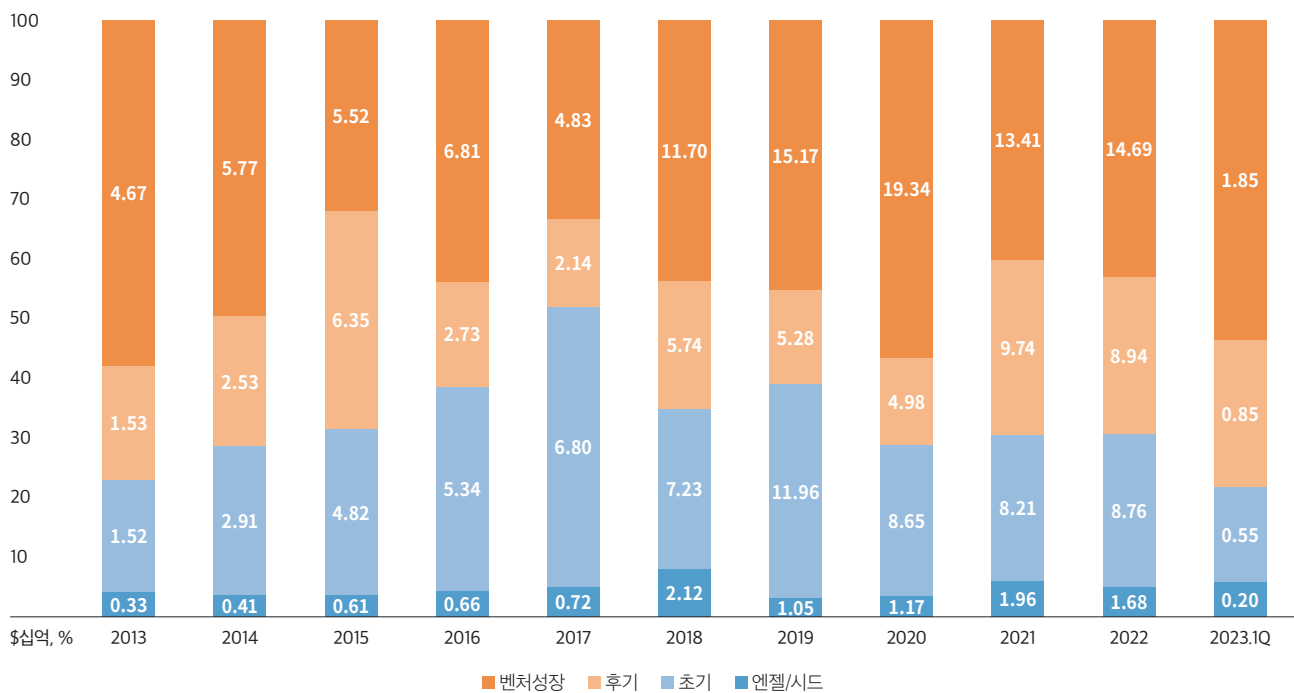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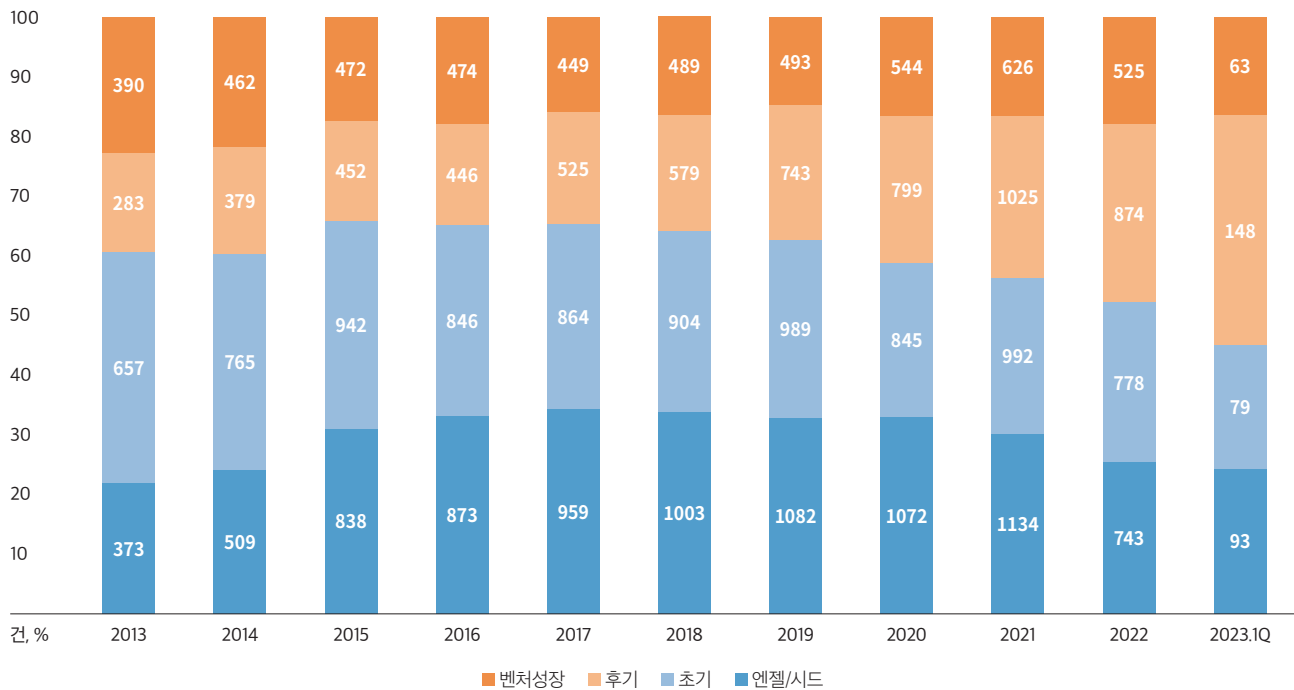
2023년 1분기의 벤처대출은 35억 달러(384건)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대출 건수 기준으로 후기 단계가 148건(38.6%), 대출금액 기준으로 벤처성장 단계*가 18.5억 달러(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1 — 미국 벤처대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그림 22 — 미국 벤처대출 기업단계별 현황: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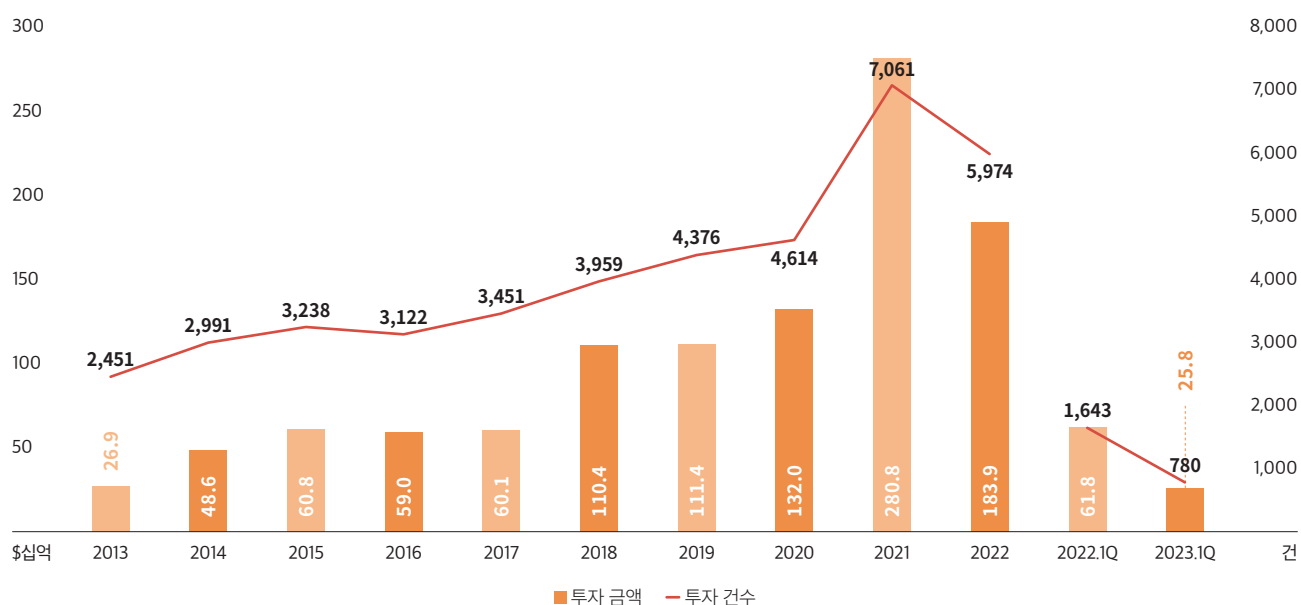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Nontraditional Investors)*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2023년 1분기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258억 달러(780건)의 투자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인 618억 달러(1,643건) 투자 대비 58.3%(52.5%)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년도부터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투자 참여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IPO시장 등의 회수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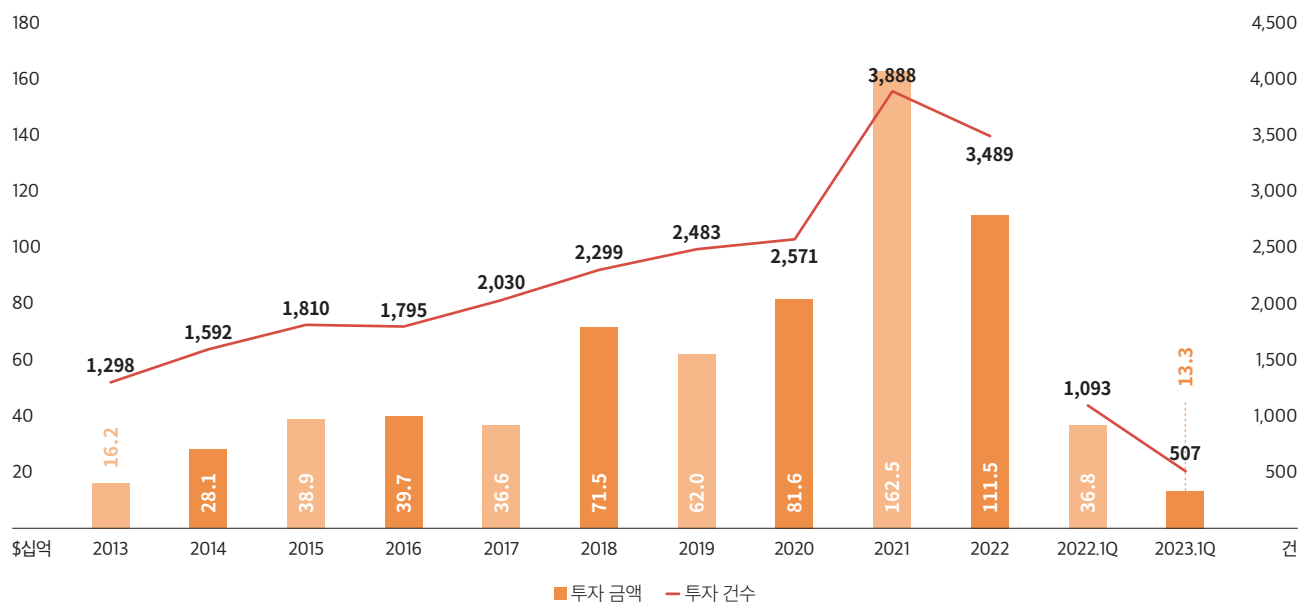
그림 23 —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 주요 비전통적 투자자 중 하나인 CVC 투자자들은 133억 달러(507건)의 거래에 참여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8억 달러(1,093건)의 거래에 참여한 것에 비해 63.9%(53.6%)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비전통적 투자자의 감소는 후기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하며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4 —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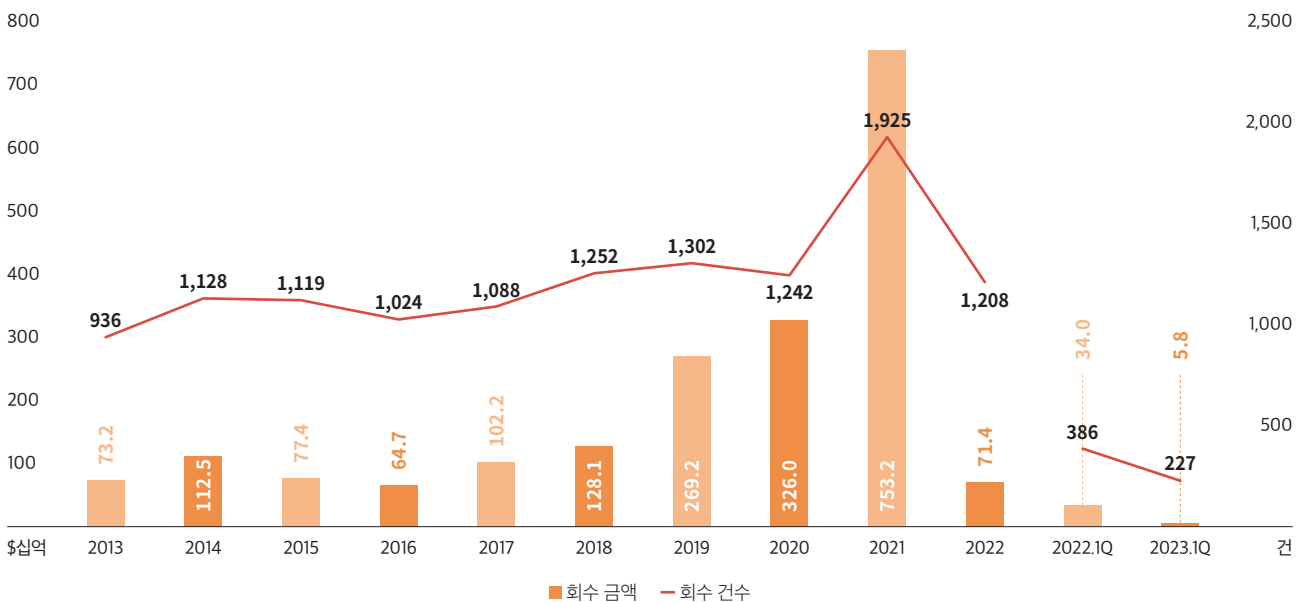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2023년도 1분기 미국에서는 58억 달러(227건)를 회수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340억 달러(386건)에 비해 82.9%(41.2%) 하락한 수치이다. 회수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이 기업의 운영비용 증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IPO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첫 분기의 부진한 회수활동의 시작을 보여주었으며, IPO를 앞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도 IPO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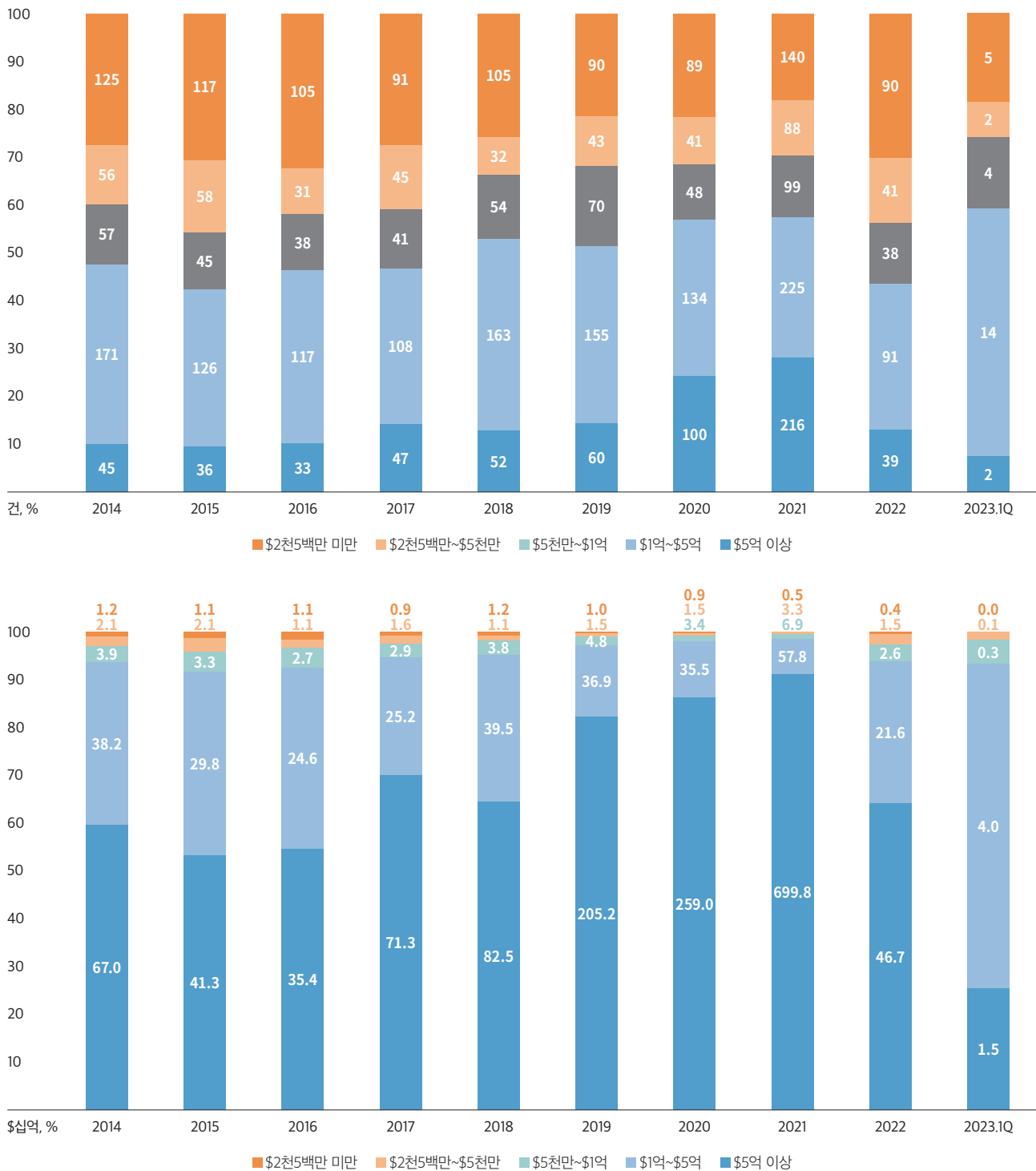
그림 25 — 미국 VC 회수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회수 실적을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7.4%, 금액 기준으로 24.9%를 차지하여 비중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5억 달러 미만의 회수는 건수 기준으로 51.9%, 금액 기준으로 68.9%로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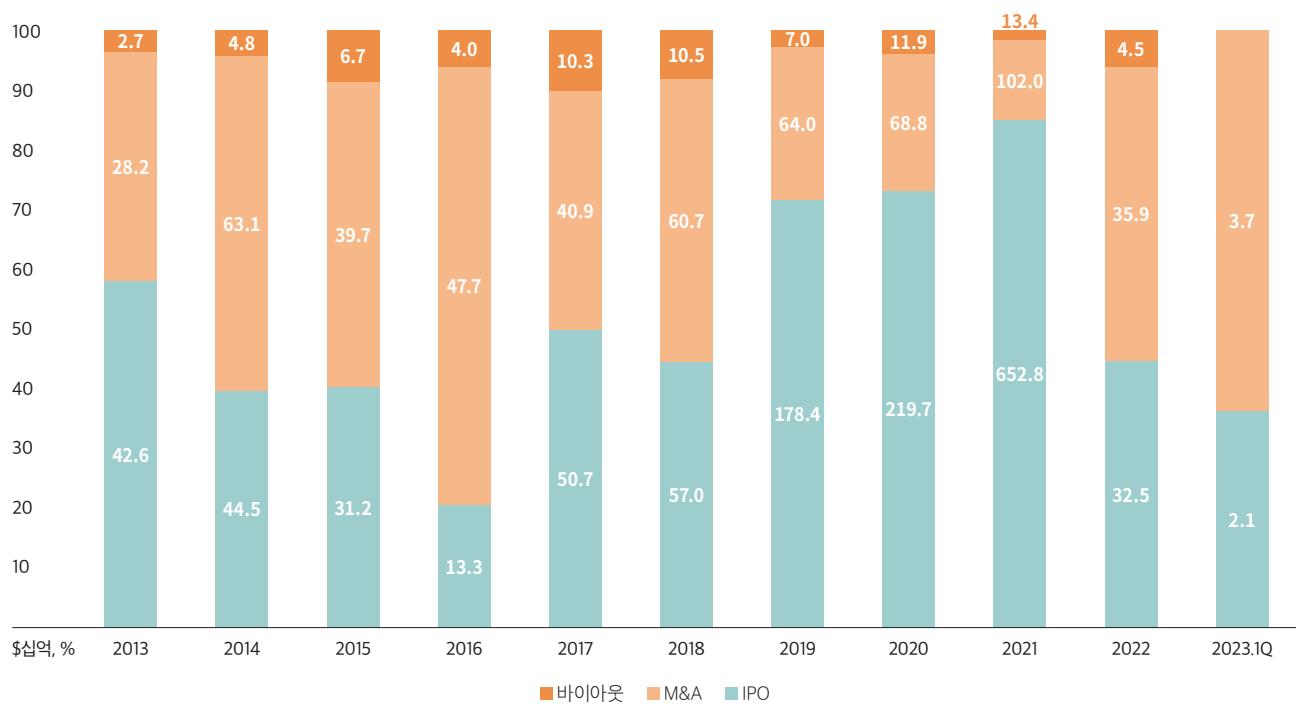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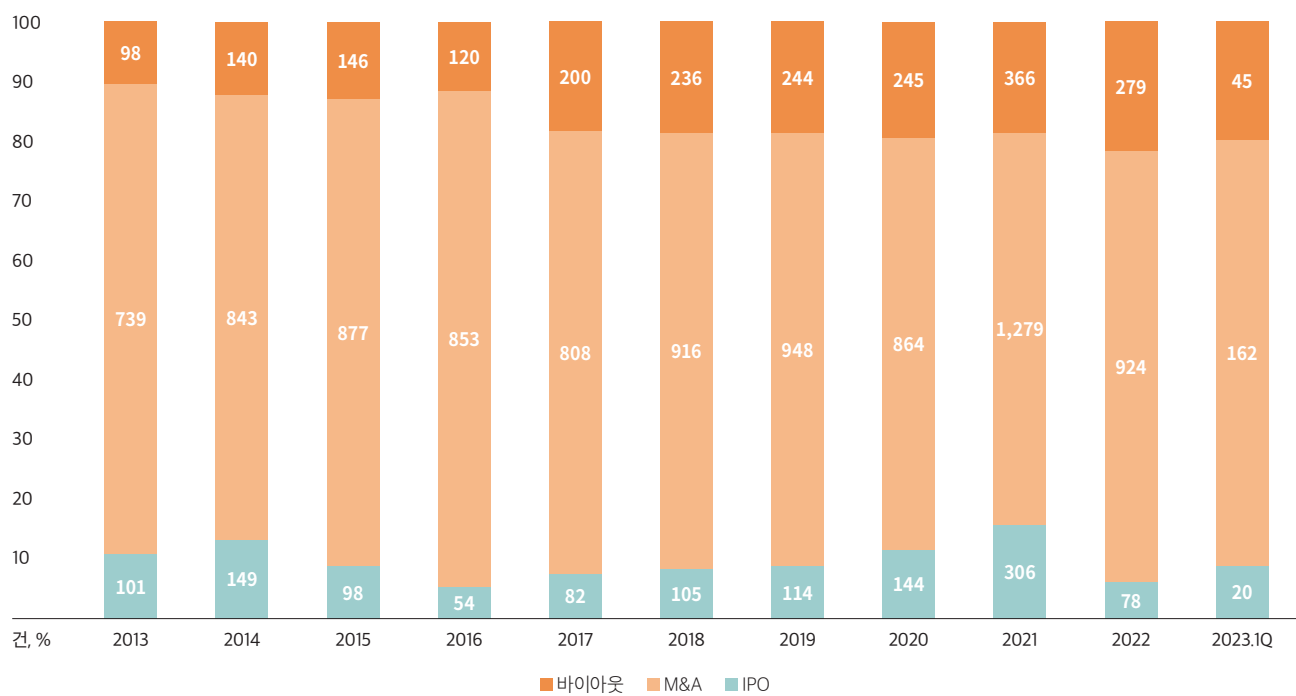
그림 26 — 미국 VC 회수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3년 1분기에 IPO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8.8%, 금액 기준으로 36.8%를 차지하였으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의 최근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다음 분기에는 VC의 M&A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 — 미국 VC 회수 유형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02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3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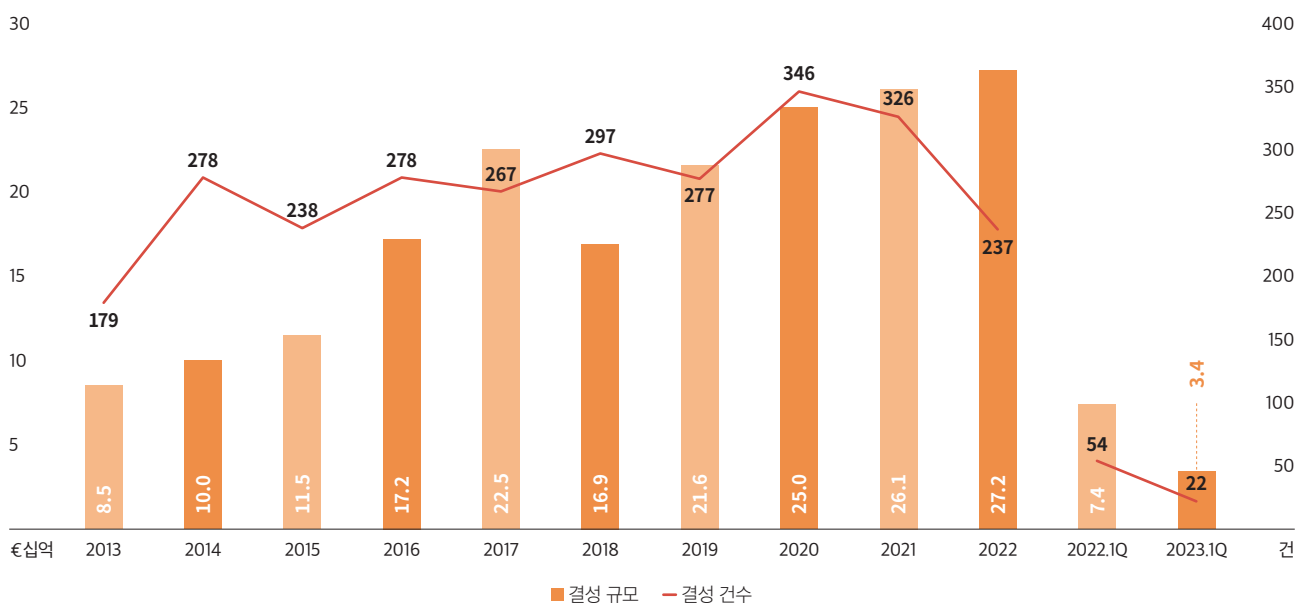
결성(Fundraising)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1분기 유럽에서는 22개 펀드가 총 34억 유로 규모로 결성되어 전년 동기 대비 결성 규모는 53.9%, 건수 기준으로는 59.3%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펀드결성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영토분쟁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펀드결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된 펀드시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 1분기에 High Tech Grunderfonds의 4번째 펀드가 5억 유로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SWEN Capital Partners의 블루오션 펀드는 1억 5천만 유로로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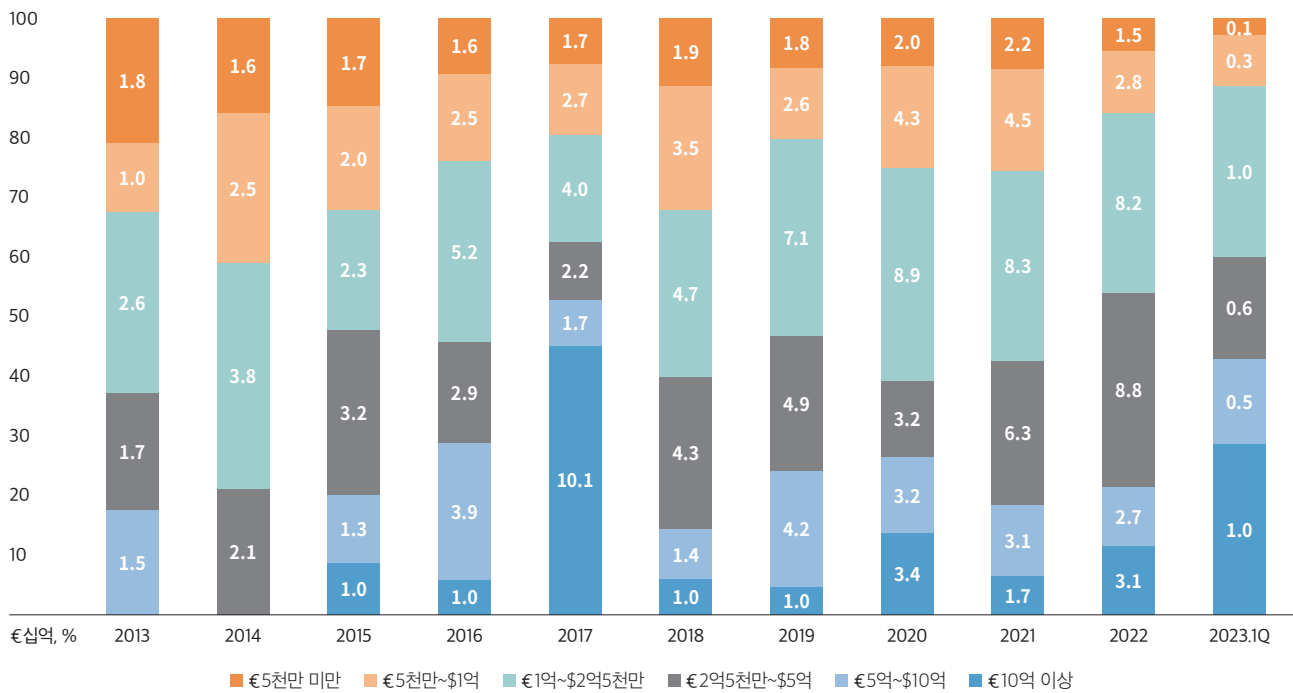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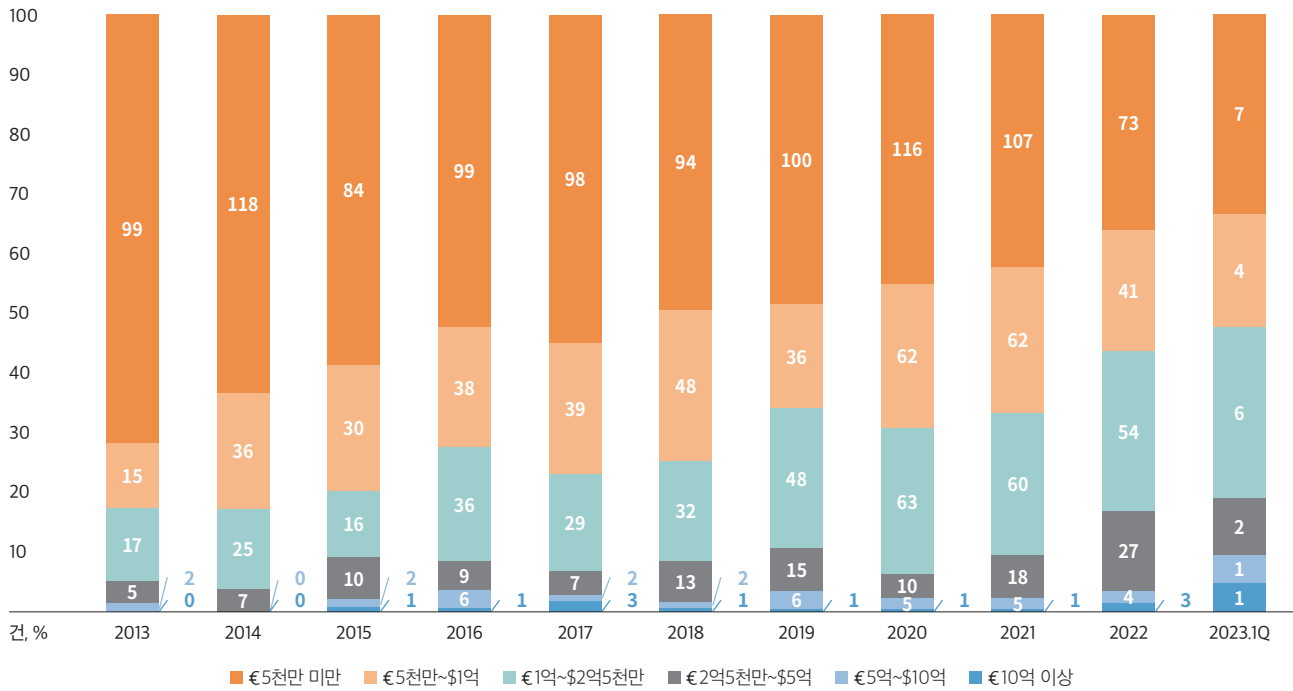
그림 1 —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2023년 1분기의 유럽 VC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펀드 비중이 건수와 금액 모두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 유럽 VC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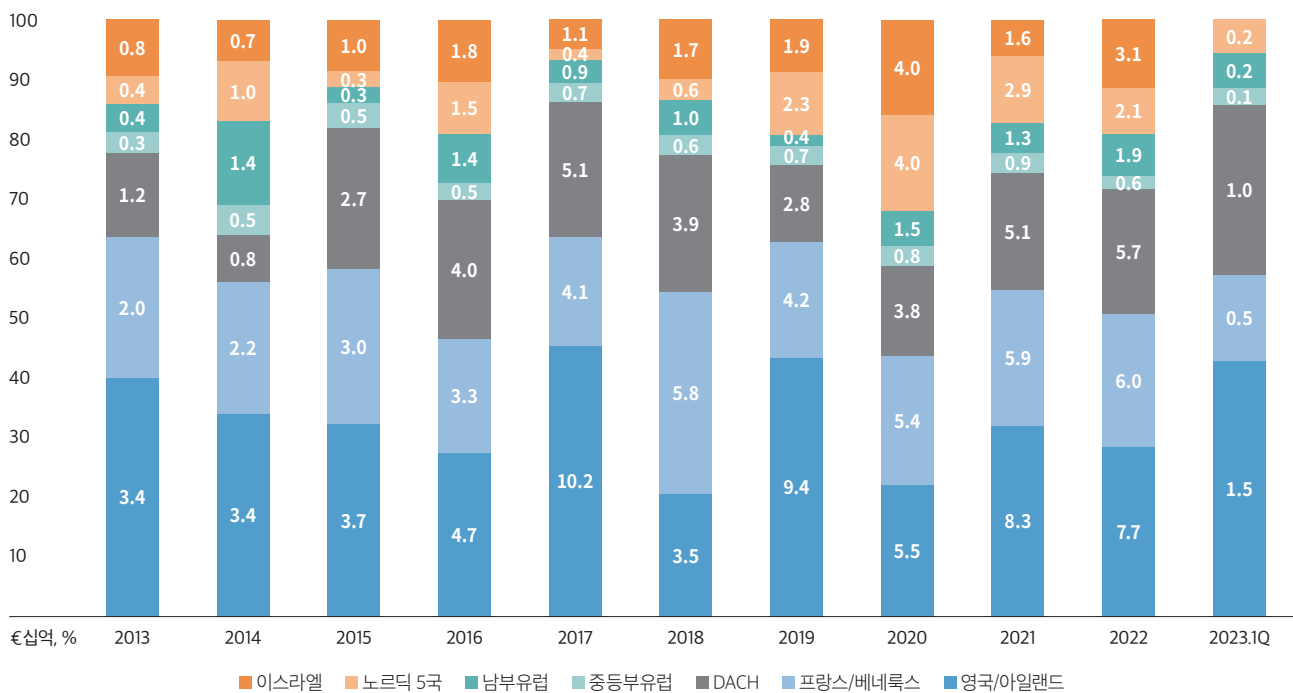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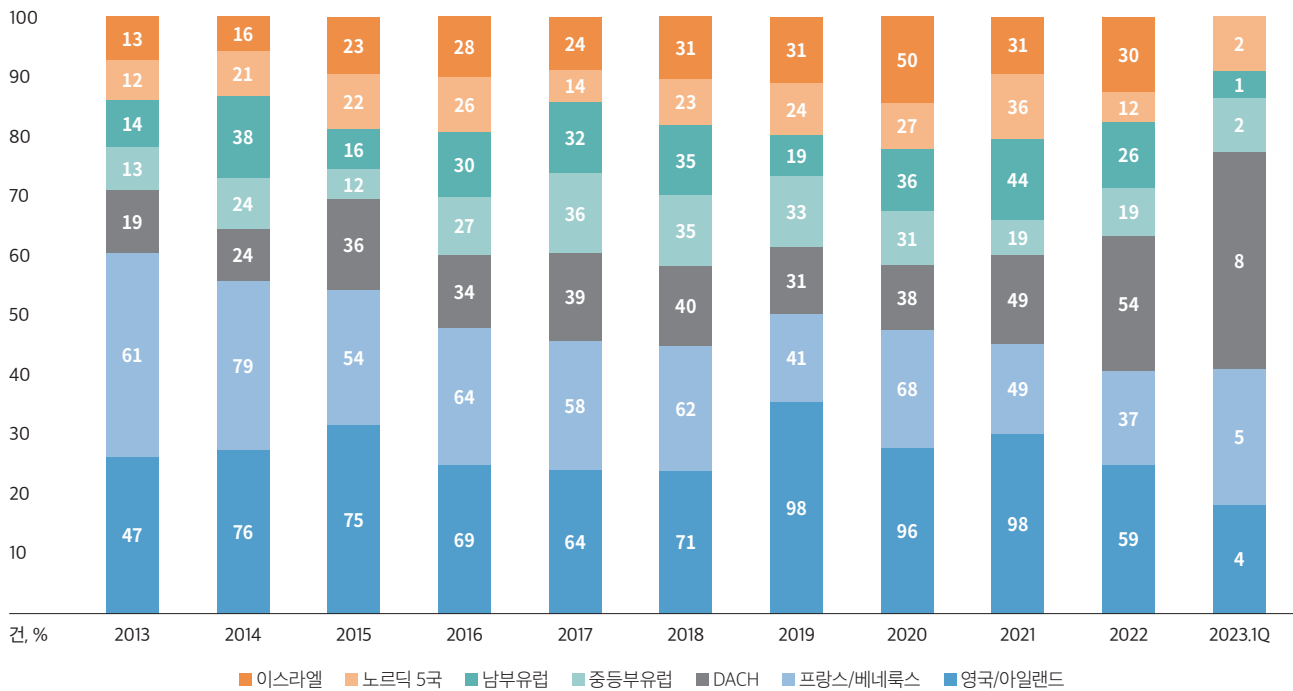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지역별로 살펴보면, 1분기의 펀드결성은 비슷한 추세로 영국/아일랜드, DACH, 프랑스/베네룩스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각각 15억 유로, 10억 유로, 5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며 유럽 전체 펀드 결성 규모 중 85.6%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분기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펀드결성이 없었다는 점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불확실한 정책환경으로 VC투자자들이 펀드결성에 주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며, 2분기까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 유럽 지역별 VC 펀드 결성 현황: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 DACH: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딕 5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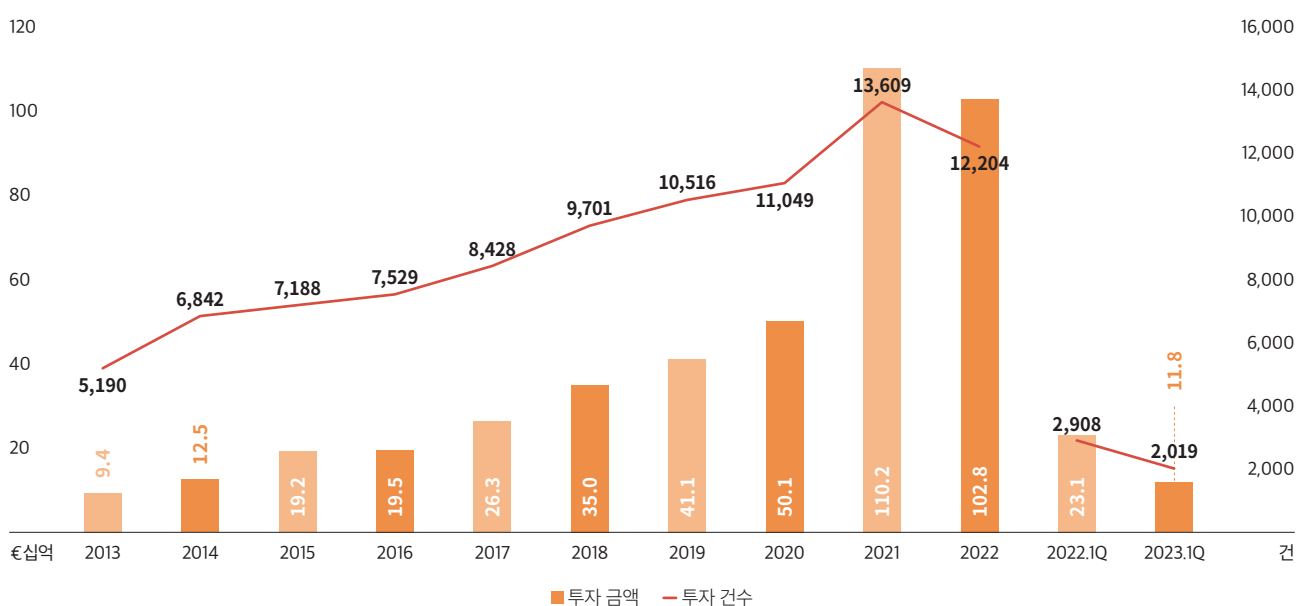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투자(Deal)

2023년도 1분기 유럽에서는 118억 유로(2,019건)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투자 규모 및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0%, 30.6% 감소하였다.

2022년은 유럽 VC투자 활동에 감속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이어진 감소가 2023년 1분기에도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으로 VC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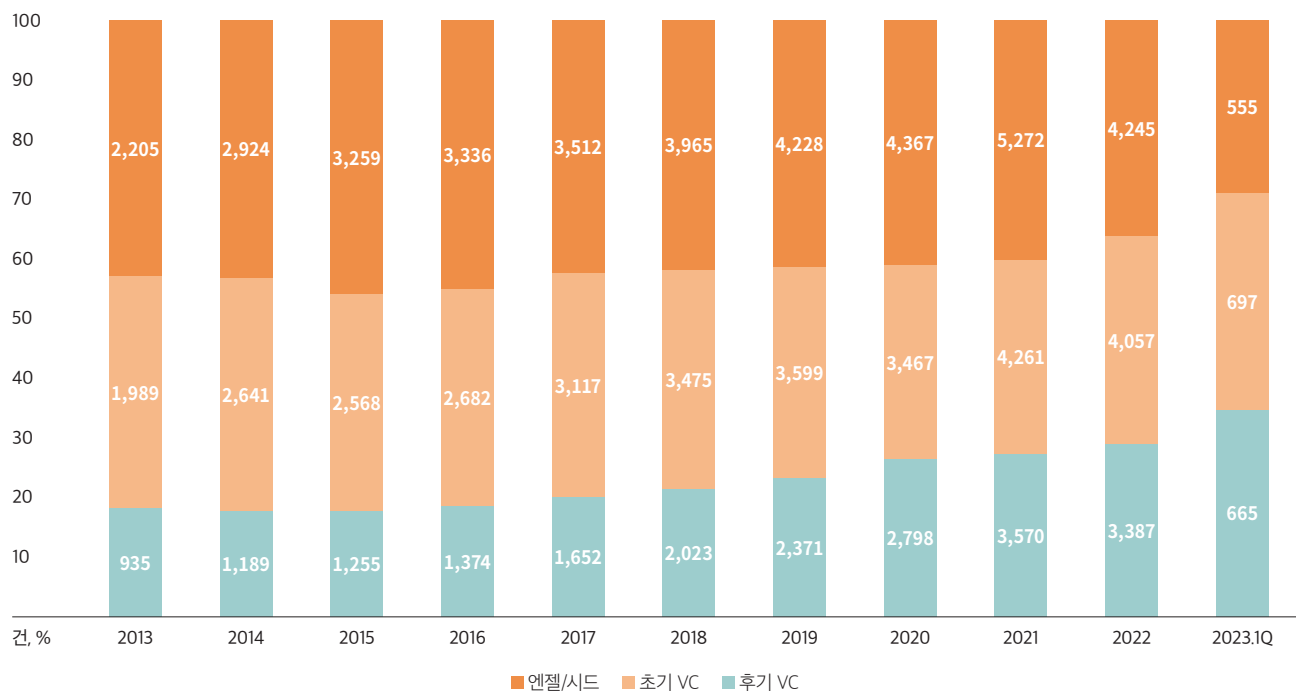
그림 4 — 유럽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초기기업에서 후기기업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악화가 VC 투자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기 VC투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기 VC 투자는 54억 유로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투자 규모 중 5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초기 VC 투자는 다소 비중이 늘어나 33억 유로의 실적 및 33.4%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5 — 유럽 VC 단계별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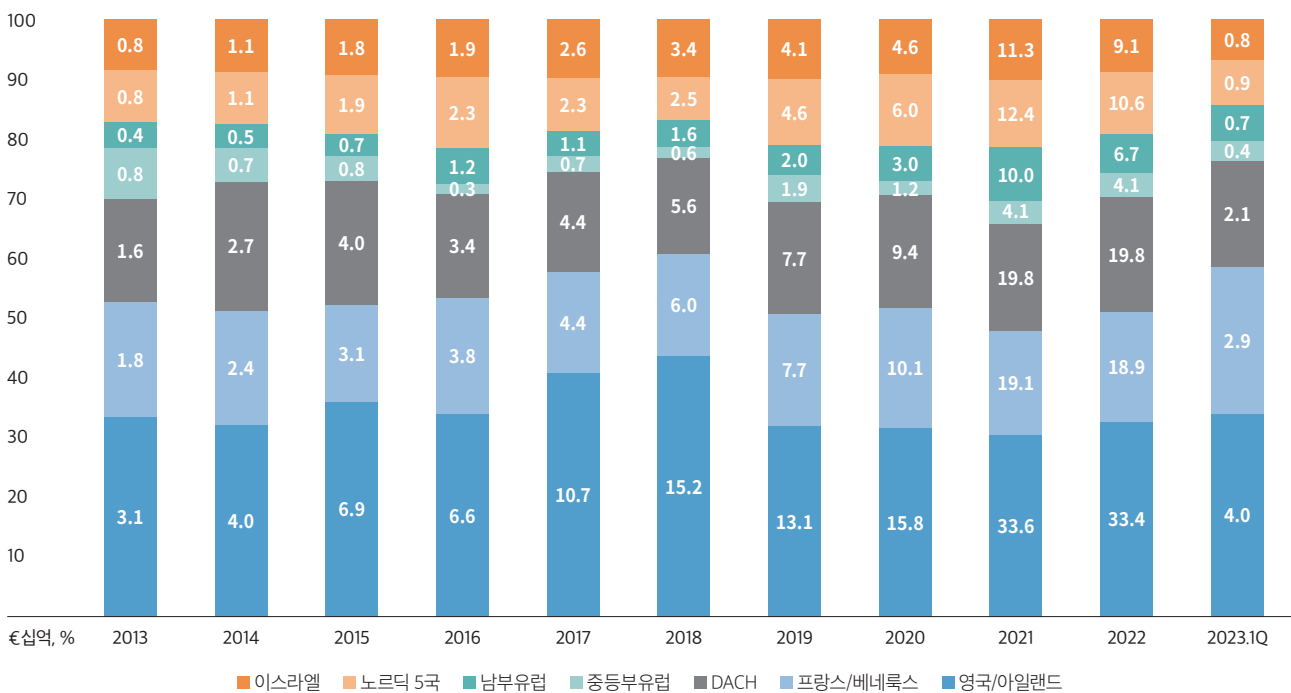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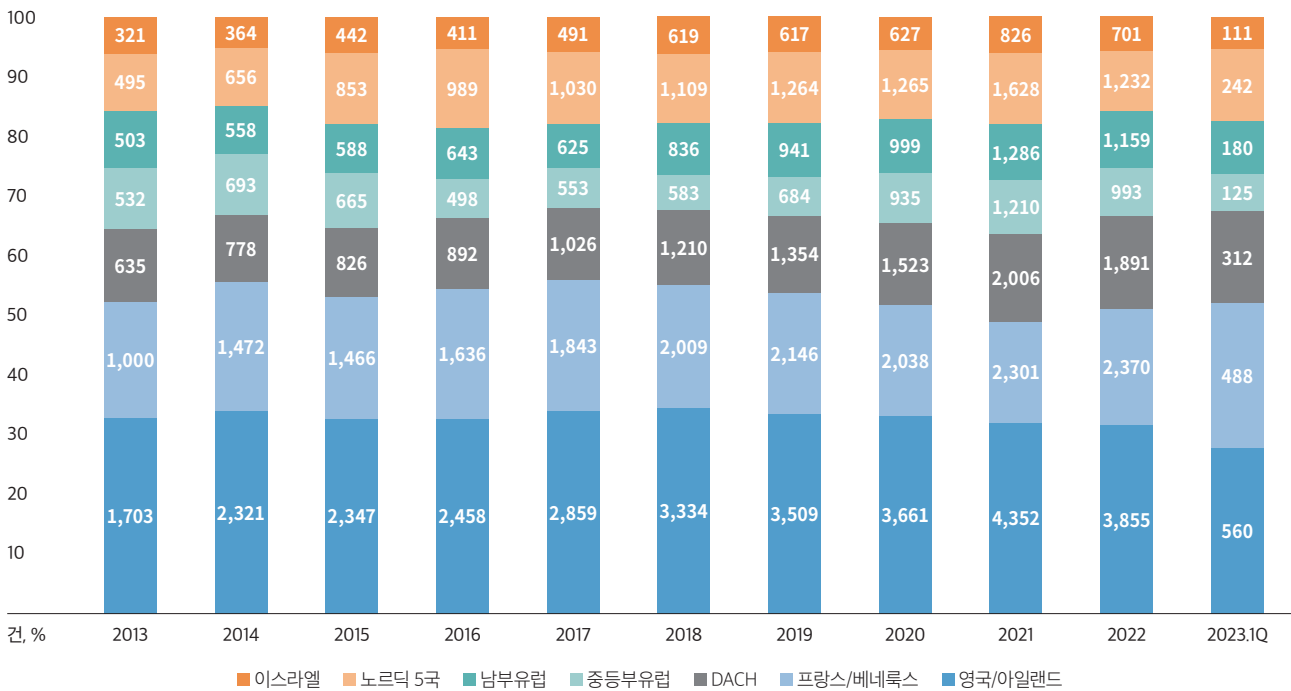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지역별로 보면, 2023년 1분기에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유럽 전체 투자규모의 33.6%에 해당하는 4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프랑스/베네룩스와 DACH 지역은 각각 29억 유로와 21억 유로의 투자금액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노르딕 5국, 남부 유럽, 중동부 유럽,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그중 아일랜드에 위치한 기업이 이번 분기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의료기기 회사인 Vivasure Medical이 가장 큰 거래 규모인 3,200만 달러를 유치하였고, AI디지털 회사인 Deciphex가 1,60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그림 6 — 유럽 지역별 VC 투자 현황: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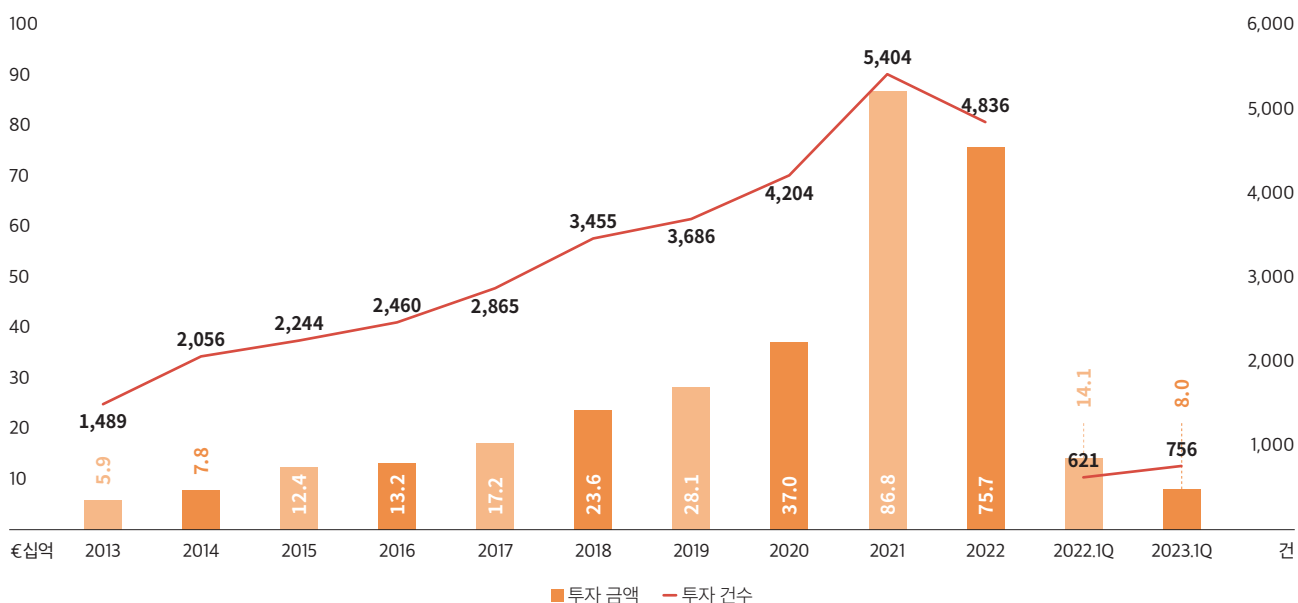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엑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2023년도 1분기 유럽의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80억 유로(756건)의 투자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규모는 43.5% 감소하였으며, 건수는 21.7% 증가한 수준이다.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경기침체로 한 기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이 회복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하며, 투자한 회사의 비용 절감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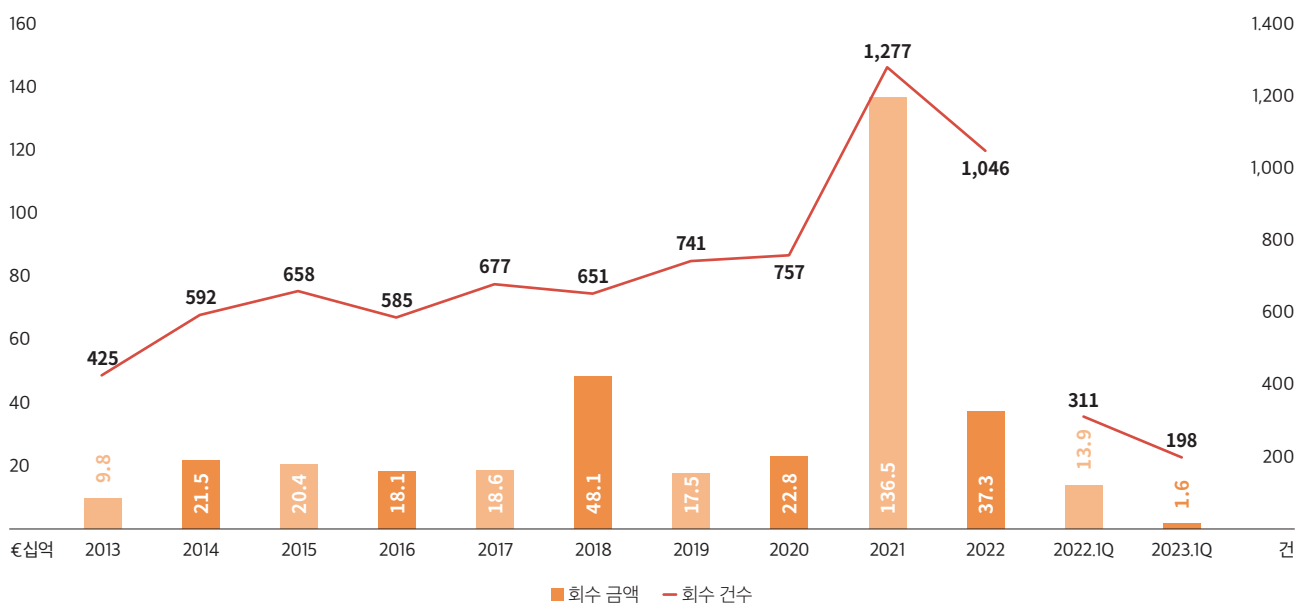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회수(Exit)

2023년 1분기의 유럽 VC시장에서는 총 16억 유로(198건)가 회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9억 유로(311건)에 비해 88.1%(36.3%) 하락한 수치로, 비우호적인 시장상황으로 기업들의 밸류이션이 크게 하락하여 회수가 더욱 어려워진 것을 보여준다. 특히 IPO시장의 부진으로 기업들의 상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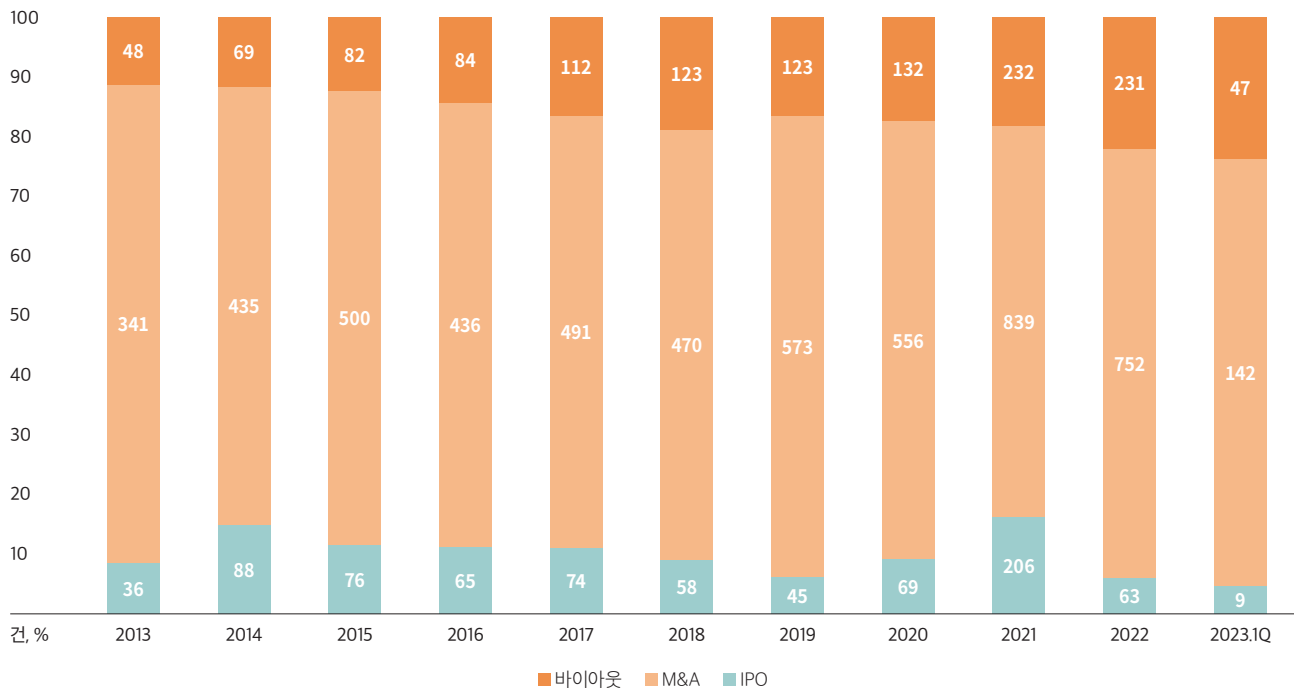
그림 8 — 유럽 VC 회수 현황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2023년 1분기에는 IPO를 통해 10억 유로(9건)의 회수가 이루어지며 전체 회수 중 57.7%(4.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건수 기준으로는 M&A가 71.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IPO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히 신생기업들이 유동성 확보 및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선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1분기에 주목할 만한 M&A 사례는 CNH Industrial이 프랑스에 기반을 둔 농업기술 전문 업체인 Augmenta를 1억 340만 유로에 인수한 것이다. Augmenta는 2018년부터 농업 관련 제품, 서비스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CNH Industrial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운영되었다.

그림 9 — 유럽 VC 회수 유형별 현황: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03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State of Venture Report 2023년 1분기)

투자

* State of Venture Report는 CB 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3년 1분기 동안 세계적으로 총 58.6억 달러(7,024건)가 투자되었다.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모두 전년 동기의 151억 달러(11,081건)에 비해 61.2%(36.6%) 하락하였다. 직전년도 4분기와 비교하면 67.1억 달러(7,986건)에 비해 12.7%(12.0%) 하락한 것으로, 투자금액과 투자 건수 모두 최근 3년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23년 1분기의 지역별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325억 달러(2,532건), 아시아가 125억 달러(2,399건), 유럽이 104억 달러(1,608건), 캐나다가 13억 달러(153건), 호주가 0.7억 달러(89건), 아프리카가 0.7억 달러(86건),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이 0.6억 달러(157건)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투자의 특징은 미국과 아시아가 벤처투자 거래점유율을 각각 36%, 34%로 주도하고 있다.

2023년 1분기의 메가-라운드 실적은 총 219억 달러(90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782억 달러(378건)에 비해 72.0%(76.2%) 감소하였으며, 이 수치는 최근 6년 동안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 메가-라운드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152억 달러(48건)를 기록하며 메가-라운드 시장을 선도하였고, 아시아가 39억 달러(22건), 유럽이 23억 달러(16건)의 투자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외 캐나다, 아프리카는 투자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호주는 메가-라운드 투자가 없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메가-라운드의 투자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 — 1분기 글로벌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십억)	투자자
Stripe	미국	인터넷/소프트웨어	6.5	Andreessen Horowitz, General Catalyst, Baillie Gifford & Co., Founders Fund, Goldman Sachs
Lenskart	인도	이커머스	0.5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Rippling	미국	인터넷/소프트웨어	0.5	Greenoaks Capital Management
Netskope	미국	인터넷/소프트웨어	0.4	Morgan Stanley, CPP Investments,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Ontario Teachers'
Anthropic	미국	인공지능	0.4	Google
Monogram Health	미국	헬스케어	0.4	CVS Health, Norwest Venture Partners, Frist Cressey Ventures, SCAN Health Plan, TPG Capital
WHP Global	미국	금융	0.3	Ares EIF Group
Adept	미국	인공지능	0.3	General Catalyst, Spark Capital, Greylock Partners, Addition, A.Capital
Anthropic	미국	인공지능	0.3	Spark Capital
Our Next Energy	미국	에너지/유틸리티	0.3	Fifth Wall Ventures, Franklin Venture Partners, Coatue Management, AI Capital, Riverstone Holdings

출처 CB Insights State of Venture Report Q3 2023

유니콘

2023년 1분기에는 13개의 새로운 유니콘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127개 유니콘이 탄생한 것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가장 적은 수의 신규 유니콘이 탄생한 셈이다. 한편,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유니콘 기업 수는 1,206개사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1분기 동안 신규 유니콘은 미국에서 8개, 아시아에서 2개, 아프리카에서 2개, 유럽에서 1개가 탄생하였다.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지역별 전체 유니콘 수는 미국 654개, 아시아 322개, 유럽 162개,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32개, 캐나다 21개, 호주 8개, 아프리카 7개로 확인되었다.

2023년 1분기 기준, 비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중국의 ByteDance(\$2,250억), 미국의 SpaceX(\$1,370억), 중국의 SHEIN(\$1,000억)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1분기에 새롭게 유니콘 기업이 된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미국의 AI기업 Anthropic(\$44억), 미국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Shiftkey(\$20억),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 Kindbody(\$18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

2023년 1분기에는 총 2,146건의 M&A, 86건의 IPO, 9건의 SPAC 상장을 통한 회수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M&A는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PO와 SPAC 역시 전년도 3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1분기 기준, 각 회수 유형별로 주목할 만한 회수 거래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의 경우 미국의 보험기업인 Blue Cross and Blue shield of Louisiana이 35억 달러에 Elevance Health에 의해 M&A된 것과, 스페인의 헬스케어 기업인 IVI가 32억 달러에 KKR에 의해 M&A된 것, 그리고 미국의 IT기업인 Wyatt Technology가 14억 달러에 Waters에 의해 M&A된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IPO의 경우 중국의 전자제조 기업 Hesai Technology가 30억 달러, 중국의 전자 제조 기업인 Greensworks가 27억 달러, 중국의 전자제조 기업인 Yuneng New Energy가 27억 달러 규모로 IPO에 성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분기에도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IPO 기업가치 상위 10개 기업을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SPAC 상장의 경우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HUB Security가 13억 달러,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인 Zura Bio 0.2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인 Orchestra BioMed이 0.1억 달러 규모의 SPAC 상장에 성공한 것 등이 주요 사례이다.

04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3년 3월 31일 기준)

* CB Insights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2023년 2월 중기부가 추가로 발표한 유니콘 기업으로서 자체 발굴기업은 8개사가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2023년 3월 31일 기준 국내에는 총 22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49개국에서 배출한 1,206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 기업가치가 3조 8,3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된 기업은 총 14개*이며 이들의 기업가치는 총 330억 달러에 달한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토스(70억 달러), 옐로모바일(40억 달러),마켓컬리(33억 달러), 트릿지(27억 달러), 위메프(23억 4,000만 달러), 무신사(22억 달러), 직방(19억 3,000만 달러), 메가존클라우드(18억 3,000만 달러), 버킷플레이스(14억 달러), 리디(13억 3,000만 달러), GP클럽(13억 2,000만 달러), 엘앤피코스메틱(11억 9,000만 달러), 야놀자(10억 달러), 아이지아이웍스(10억 달러)가 존재한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데카콘 기업은 총 53개이며,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32개, 중국에 소재한 기업이 11개(홍콩 포함), 영국에 소재한 기업이 4개, 인도에 소재한 기업이 2개, 그리고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세이셸(Seychelles)에 각각 1개가 존재한다.

출처 CB Insights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표 1 —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가치 총계
미국	653	2,049.1
중국(홍콩 포함)	176	735.7
인도	70	212.9
영국	48	180.2
독일	29	80.9
프랑스	25	59.6
이스라엘	24	54.4
캐나다	20	50.2
브라질	16	39.1
한국	14	32.5
싱가포르	14	22.9
호주	8	55.4
멕시코	8	18.7
인도네시아	7	29.1
스웨덴	7	22.6
네덜란드	7	22.5
스위스	6	12.3
아일랜드	6	10.1
일본	6	8.8
스페인	5	7.2
핀란드	4	12.5
노르웨이	4	4.5
터키	3	12.8
벨기에	3	10.1
콜롬비아	3	7.4
아랍에미리트	3	5.1
태국	3	3.5

MarketWatch



5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해당 보고서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3년 1분기(1~3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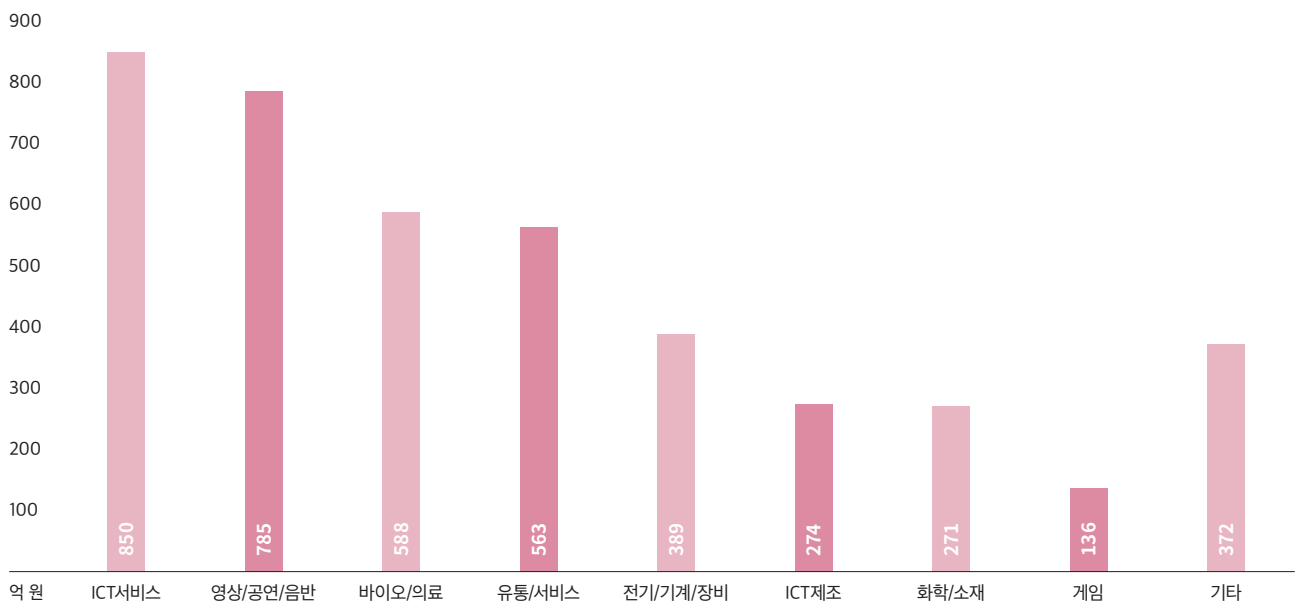
2023년 1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321개(-32.0%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4,227억 원(-51.8%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직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13.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 시에는 29.0% 하락한 수치이다.

산업별(대분류 기준)로는 ICT서비스(850억 원, -64.0% YoY)가 직전 분기에 이어 여전히 전체 산업 중 투자금액 1위를 차지했다. ICT서비스의 뒤를 이어 영상/공연/음반(785억 원, 31.1% YoY), 바이오/의료(588억 원, -70.4%, YoY)이 각각 투자금액(산업별 기준) 2위, 3위를 기록하였다. 유통/서비스(563억 원, -68.1% YoY)는 직전 분기 대비 투자금액이 41.0% 감소하며 4위로 밀려났다. 다만, 3위를 기록한 바이오/의료 분야와의 투자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 전체 9개의 산업(대분류 기준) 중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벤처투자가 위축된 모습이 이어졌지만, 영상/공연/음반과 ICT 제조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상위 3개 종목의 전체 투자금액(2,223억 원) 및 전체 투자 비중(52.6%)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였다.

세부 분야(중분류 기준)를 살펴보았을 때, 영상(661억 원, 39.4% YoY), 소프트웨어(596억 원, -66.8% YoY), 의료용물질/의약품(512억 원, -69.6% YoY)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영상과 소프트웨어의 순위만 바뀌었을 뿐 상위 3개 종목의 구성은 직전 분기와 동일한 수치이다. 상위 3개 업종 중 영상 분야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뿐 아니라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투자금액이 증가하였는데, 영화·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 관련 투자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 — 2023년 1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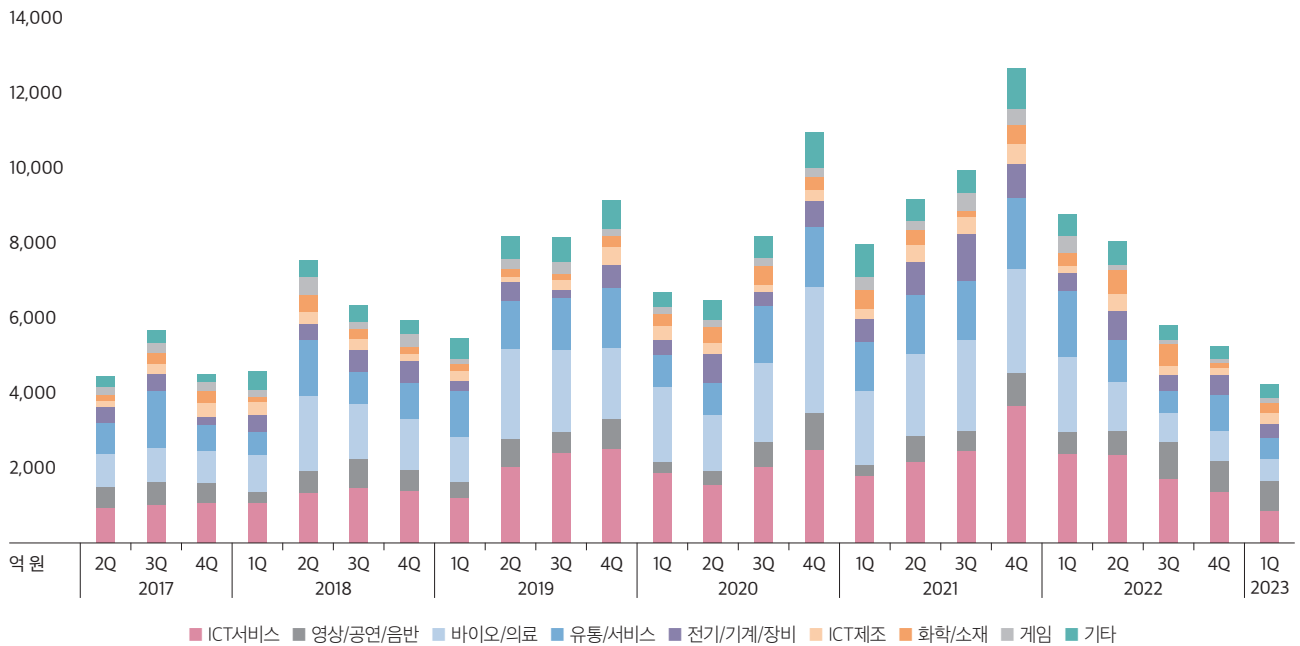
그림 2 — 2023년 1분기 세부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출처 한국벤처투자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1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 원 감소하였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제조로서 기업당 평균 19.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분기 대비 29.2% 상승한 수치로 지난 분기 3위에서 1위로 순위가 2단계 상승하였다. 직전 분기 가장 낮은 평균 투자금액(6.5억 원)을 기록했던 게임의 경우 이번 분기 기업당 평균 16.9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2위를 기록했다. 화학/소재와 바이오/의료 분야 모두 평균 투자금액 15.9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각각 전년 대비 18.2%, 35.3% 하락하며 바이오/의료의 감소세가 더 큰 모습을 보였다. 유통/서비스의 경우 평균 투자금액 10.6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바로 위 순위를 기록한 ICT서비스(10.8억 원)와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 2023년 1분기 말 기준 보고된 금액으로 분기별 수치는 해당 분기에 발간된 마켓워치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출처 한국벤처투자

1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9건 감소한 2건을 기록했다. 영상/공연/음반,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 각각 한 건의 메가딜이 발생하였다. 투자 단일금액 기준으로 영상제작 기업에 이루어진 120.0억 원 투자가 2023년 1분기 1위를 기록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2020년 이후 분기별 투자 단일금액 1위 간 비교 시 가장 작은 수치이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표 1 — 2023년 1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합계	4,227	321	13.2
ICT서비스	850	79	10.8
소프트웨어	596	55	10.8
정보서비스	243	23	10.6
통신	10	1	10.0
바이오/의료	588	37	15.9
의료용물질/의약품	512	31	16.5
의료기기	56	5	11.2
의료시설/서비스	20	1	20.0
유통/서비스	563	53	10.6
전문서비스	344	29	11.9
도소매업	157	19	8.3
교육	36	4	9.0
숙박/음식업	25	1	25.0
영상/공연/음반	785	56	14.0
영상	661	44	15.0
공연/전시/음악	59	9	6.5
출판/방송	65	3	21.7
전기/기계/장비	389	28	13.9
전기장비	90	6	14.9
일반기계	124	12	10.3
운송장비/부품	76	3	25.3
정밀기기	100	7	14.2
화학/소재	271	17	15.9
화학물질/제품	144	11	13.1
금속	50	3	16.7
고무/플라스틱	77	3	25.5
ICT제조	274	15	18.2
반도체/전자부품	176	11	16.0
통신방송장비	98	4	24.5
게임	136	8	16.9
게임소프트웨어	136	8	16.9
기타	372	28	13.3
에너지/자원	25	2	12.5
음식료	70	6	11.7
금융	50	4	12.5
섬유/의복/가죽	35	3	11.8
부동산/임대	109	3	36.3
목재/종이/인쇄/가구	3	2	1.5
기타	80	8	10.0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2023년 1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KEYWORDS

ICT서비스	#코딩 교육용 로봇 #VR 어트랙션 #스마트 안전 에이전트 솔루션 #자동차 정비 플랫폼 #숙박 중개·관리 솔루션 #모바일로봇 전문 프로바이더 #라이브 방송 솔루션 #디지털 헬스케어 AI #커머스 대상 리뷰 플랫폼 #GPU 분할 가상화 기반 PaaS #학원 광고 미디어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수면관리 솔루션
바이오/의료	#줄기세포 기반 골괴사 치료제 #위암 약제 적합성 테스트 솔루션 #CAR-T 치료제 #PROTAC 플랫폼 기술 기반 면역항암제 #AI 약물설계 플랫폼 #ARS 표적 기반 신약개발 #줄기세포 유래 혈관내피세포치료 #환자 맞춤형 수술 솔루션 #알츠하이머 치료제 #당뇨케어 플랫폼 #시니어케어 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공정 개발 서비스 #항체 기반 항암제
유통/서비스	#골프회원권 거래 플랫폼 #중단기 공유숙박 플랫폼 #친환경포장재 콜드체인 #AI 기반 디지털 오프라인 광고 솔루션 #양자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리테일 중개 플랫폼 #화장품/패션 제품 판매 플랫폼 #영유아 통합 교육 시스템 #커피 프랜차이즈
영상/공연/음반	#영화 제작 및 배급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영유아 스마트러닝 #웹툰/웹소설 제작 #VFX 워크 플랫폼
전기/기계/장비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 제조 #웨어러블 로봇 제조 #2차전지 폭발방지 소재 #2차전지 용접장비 #비전검사용 핵심 모듈 제조 #인공위성 발사체 제작 #전기차 모터 하우징 및 커버
화학/소재	#의약품료 첨가제 #친환경 수해리 테이프 #폐배터리 리튬 생광물화 시스템 #2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복합소재
ICT제조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칩 클라우드 디자인 플랫폼 #광학식 시험 및 분석기기
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 #게임개발 및 서비스
기타	#반려동물용 헬스케어 제품 제조 및 판매 #복합사 및 페플라스틱 리사이클 원사 제조

